

# 리아호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  
준비하는 방법





**주** 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책임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사들은 사람들을 세상의 어둠에서 끌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안전으로 인도합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 10쪽 참조.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처 옥스, 엠 라셀 벨러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기무치, 제럴드 앤 렌드, 더블류 더글라스 생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비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Christy Banz, 린다 스탈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터 콘트, 케리 카스텐, 멜빈 래넷, 멜리사 메릴, Michael R. Morris, 샬리 제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리차드 엠 롬니, 제니퍼 로즈, 돈 엘 셀, 재닛 토마스, 폴 밴덴버그, 줄리 워델, 캄벌리 웹

**선임 비서:** 오니카 엘 디킨스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타스

**디자이너 및 제작 스태프:** 칼리 알 아로요, 클레트 네베거 오온, 브리트니 존스 빔,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랜달 제이 픽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워크

**배부 책임자:** Randy J. Benson

통 권: 제 492호, 제 44권, 제 3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7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박승호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자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liahona@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도,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심할리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벨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디어, 헝가리어, 힌디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7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March 2007 No. 3.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동정심이라는 선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귀를 기울여 영의 속삭임에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십시오
- 26 전세계 곳곳의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  
코니 디 캐넌
- 32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신앙을 가짐  
캐서린 에드워즈
- 41 신약전서의 교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고원용 장로
- 44 후기 성도의 소리  
펜팔과 구도자 소개  
브리트니 존스 빔  
절대로 늦지 않았음  
실비아 데 모스쿠이 말도나도  
영의 언어로 이야기함  
세르지오 아드리안 로페즈  
천 명의 영혼 중 첫 번째  
노리에 츠바키 무라에
- 48 애독자 편지



26 전세계 곳곳의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다음 제언은 반이나 가정에서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 10쪽: 가족

각자에게 이 기사에 나오는

질문 한 가지를 미리 지명해

주고 그 질문에 대한

발라드 장로님의 대답을

공부하여 가족에게 가르칠 준비를 하게

한다.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할 때 큰

기쁨이 온다고 간증한다.

**“19살에 알았더라면 ...”**, 38쪽:

선교사를 위한 네 가지 제언을 나누고

그와 관련된 원리에 대해 토론한다.

학교, 직장, 또는 생활의 여러 다른 면에서 이러한 제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역할극으로 나타내

보인다. 가족 개개인에게 한 주

동안 그 제언 가운데 하나를

사용할 목표를 세우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하도록

권유한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41쪽:

경전과 빵 한 덩어리를 보여 주고

질문한다. “이 두 가지는 각각 어떻게

영양을 공급해 줌니까?” 이 기사의

마지막 두 항목을 읽고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복서 김지

#### 주님의 추수, 매릴리 캠프

이 그림은 선교사들이 가장 좋아하고 교리와 성약에 네 번 나오는 성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라, 밭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두기 원하는 자는,  
자기 힘을 다하여 낮을 휘둘러 낮 동안에 거두어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영원한 구원을 쌓아 돌지이다.”(교리와 성약 6:3; 11:3; 12:3; 14:3)





16 선교사의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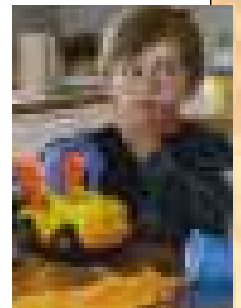
**청소년**

- 9 포스터: 선교사 훈련원
- 10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와의 인터뷰
- 16 선교사의 하루 아담 시 울슨
- 22 선교 임지에서 집으로 가져갈 선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36 친구에서 자매로, 그리고 동반자로 레베카 밀스 홈과 브래드 윌콕스
- 38 19살에 알았다더라면 ... 로저 테리

22 선교 임지에서 집으로 가져갈 선물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더욱 쉽게 용서함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엘리자베스 리스
- 친6 스펜서 더블류 킴블 회장의 생애에서: 성경 읽기
- 친8 우정 팔찌 제니퍼 로즈
- 친11 정직한 모건 비키 에이치 버지
- 친12 색칠하기
- 친13 특별한 증인: 저는 얼마 전에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활속에서 영의 영향을 느낄 수 있을까요?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친14 친구가 친구에게: 선교사 친구들 게리 제이 콜먼 장로
- 친 16 주 예수를 닮으려고: 교장실에서의 정의반 반지 레베카 에프



친11 정직한 모건

이번 호에 숨겨진 정의반 반지를 찾으면서 계명을 지킬 때 구주의 모범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 간증한다.

“우정 팔찌”, 친8쪽: 이야기를 읽은 후, 가족들에게 원으로 둘러서서 손을 잡게 한다. 옆 사람이 자기 손을 꼭 쥐자마자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부드럽게 쥐어야 한다고 알려 준다. 손을 쥐는 것은 친절한 행동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가족들에게 항상 친절하도록 권유하고 친절한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다.

“선교사 친구들”, 친14쪽:

어린이들에게 다른 와드나 지부의 초등학교에 참석했을 때의 느낌을 설명해 보게 한다.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초등학교에 참석했을 때 그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환영하는 사람이 될 것을 상기시켜 주는 표시로 활용할 어린이 선교사 배지를 가정의 밤 동안 만든다.

**표지**

앞표지 사진 촬영: 웰턴 시 앤더슨  
뒷표지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존 루크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선택의지, 32, 친4쪽
가르침, 1쪽	성신, 22, 25, 친13쪽
가정 복음 교육, 8쪽	성전, 2쪽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속죄, 친2쪽
모임, 26쪽	순종, 32, 친4쪽
가정의 밤, 1쪽	슬픔, 2쪽
결혼, 32쪽	영생, 41쪽
기적, 2, 38, 41쪽	영적 은사, 22쪽
동정심, 2, 41쪽	예수 그리스도, 2, 41쪽
물문경, 45, 46쪽	용서, 친2, 친8쪽
방문 교육, 25쪽	우정, 36, 친8쪽
봉사, 2쪽	일, 10, 22쪽
사랑, 22쪽	자립, 10쪽
상호부조회, 26쪽	재정, 26쪽
선교 사업, 16, 44, 45, 46, 47, 친14, 친16쪽	정직, 친11쪽
선교사 동반자, 36, 38, 44쪽	지식, 22쪽
선교사 준비, 9, 10, 22, 36, 38쪽	초등학교, 친4쪽
	친절, 2, 친18, 친14쪽
	침례, 36, 46쪽
	확신, 32쪽



# 동정심이라는 선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몇**년 전, 저는 오클라호마 주 오클라호마시티에서 한 지역 대회를 감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대회 동안 장내를 압도했던 감미로운 영과 사람들의 놀라운 환대 속에서, 1995년 4월 19일 그 지역 사회의 인정 어린 도움의 정신이 어떻게 큰 시험을 겪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오클라호마시티의 중심에 있는 알프레드 피머라 연방 청사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폭파되어 168명이 생명을 잃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는 차를 타고 한때 알프레드 피머라 건물이 서 있던 곳을 장식하고 있는, 아름다우며 상징적인 기념관의 입구로 안내되었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을 강조하려는듯 그날은 쓸쓸하고 비가 내렸습니다. 이 기념관에는 폭이 122미터 정도 되는 반사 못이 있습니다. 그 못 한쪽에는 유리와 화강암으로 된 168개의 빈 의자가 사망자 한 명 한 명을 추모하기 위해 놓여 있습니다. 이 의자들은 시신이 발견되었던 자리를 최대한 가까이 추적해 그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 못의 반대쪽에는 근처에서 유일하게 폭발속에서 살아남은 아메리카 느릅나무 한 그루가 약간 높은 언덕에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적절하고도 애정 어린 이름인 “생존자 나무”라고

명명되었으며, 당당한 자태로 무서운 폭발 사고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안내원은 기념관 문 위에 새겨진 비문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자와 생존자와 영원히 변화된 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이 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념관에서 위안과 힘과 평화와 희망과 평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내하던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지역 사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시민들은 모두 자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슬픔 가운데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일어났던 일을 가장 적절히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동정심”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의 머리 속에 티 에이치 화이트의 소설을 토대로 앨런 제이 러너가 쓴 뮤지컬, “카펠릿”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과의 이상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아더 왕은 원탁의 목적을 마음에 그리며 “폭력은 강한 것이 아니며, 동정심은 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동정심의 힘

이 말을 설명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성경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 그 상처[를] ... 싸매고 ...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림: 월터 러빈, 스펀, 사마리아인,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 제공, 사진 촬영: 부시스 포토그래피

구약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은 그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고, 결국 그는 목숨을 지탱할 음식도 물도 없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져 지나가던 대상에게 은화 20냥에 팔려 결국에는 애굽 땅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sup>1</sup> 젊은 요셉은 번영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수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기근이 극심할 무렵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으며, 이들은 이 은혜로운 사람, 곧 그들의 동생 덕분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전에 형들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그들을 가혹하게 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했으며, 다음과 같은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환심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니.”<sup>2</sup>

요셉은 동정심이라는 훌륭한 미덕을 모범으로 보였습니다. 절정의 시기에 예수께서는 성지의 먼지 나는 길을 걸으시면서 종종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요셉은 이전에 형들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그들을 가혹하게 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의심할 것도 없이 대답은 “자비를 베푸자”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sup>3</sup>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동정심의 많은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못의 다리 저는 사람, 음행 중에 잡혀 온 여자, 야곱의 우물가의 여인, 아이로의 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 등은 각각 여리고로 가는 길의 재난 당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모두 다 도움을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데스다 못에서 다리 저는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sup>4</sup>고 하였고, 죄지은 여인에게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sup>5</sup>고 하셨으며,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셨고,<sup>6</sup> 아이로의 죽은 딸에게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sup>7</sup>고 하셨으며, 무덤의 나사로에게는 “나오라”<sup>8</sup>고 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항상 무한한 동정심의 가능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미대륙에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에게 저는 자나, 맹인이나, 다리 불편한 자나, 장애인이나 나병환자나, 마른 자나, 못 듣는 자나,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김이요 …

“… 그들 모두를 고쳐 주시리라.”<sup>9</sup>



## 우리의 여리고 길

혹자는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구속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의 삶에서, 나만의 여리고 길에서 그러한 값진 경험을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와서 보라.”<sup>10</sup>

우리에게 언제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질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여행하는 여리고 길에는 이름이 없으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친 나그네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교회 본부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에는 편지를 쓴 사람의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신인 주소와 이름은 없었지만 소인은 오리건 주 포틀랜드로 찍혀 있었습니다.

“제일회장단 사무실 귀중,

“솔트레이크시티는 한때 제가 방황하던 시절, 기독교적인

**예** 수께서는  
동정심의 많은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못의  
다리 저는 사람, 음행 중에  
잡혀 온 여자, 아이로의 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 ... 모두 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낙담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질로 보니  
어떤 부부가 제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이,  
괜찮아요?’ 라고 부인이  
물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버스로 캘리포니아까지 전국 횡단 여행을 하는  
도중 저는 필요한 약이 없어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아프고 떨리는 몸으로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보스턴에서 쫓기듯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그만 깜빡 잊고 약을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템플 스퀘어 호텔의 식당에서 저는 낙담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질로 보니 어떤  
부부가 제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이, 괜찮아요?’ 라고  
부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몸을  
똑바로 세워 앉아, 울면서 약간  
심란한 마음으로 곤경에 빠진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은

황철수설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지배인과 이야기해  
제가 5일 동안 그 식당에서 무엇이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옆에 있는  
호텔 데스크로 저를 데리고 가서 5일 동안 묵을 수  
있는 방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후 차에 태워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참으로 제 건강과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생명줄인 약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건강을 회복하고 힘을 키우고 있는 동안 저는 매일 태버나클 오르간 연주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르간이 연주하는, 가냘픈 음에서부터 세찬 음으로 가득 이루어진 천상의 음악은 제가 들어 본 소리 중에서 가장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버나클 오르간과 합창단의 앨범과 테이프를 구했으며, 이 음악은 제가 의기소침해지려 할 때마다 제 영혼에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호텔에서의 마지막 날, 다시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열쇠를 반납하면서 저는 그 부부가 남긴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풀으로써 우리에게 보답해 주세요.’ 저는 늘 그렇게 살고자 했지만 그 일 이후로 더욱더 세심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기가 실제로 경전에서 말하는 ‘후기’ 인지는 아는 바 없지만, 제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귀 교회의 회원 두 명은 제게 ‘성도’였음을 압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싶어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동정심의 사례입니까!

### 궁핍한 자들을 위해

동정심으로 가득 찬 한 사설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소유주는 에드나 휴렛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드나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은 생을 그녀의 보살핌 아래 지내고자 하는 환자들이 줄을 지어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환자들의 머리를 감겨 주고 빗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노인들에게 목욕도 시켜 주고 밝고 깨끗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수년간 저는 한때 제가 감리했던 와드의 미망인들을 방문할 때면 으레 에드나의 요양원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상냥한 미소로 저를 환영해 주고 환자들이 앉아 있는 거실로 안내해 주곤 했습니다.

저는 늘 지니 버트라고 하는 가장 연로하신 분과 함께 먼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니는 102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와 저의 가족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지니는 강한 스코틀랜드 사투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토미, 최근에 에든버러에 가 본 적 있어요?”

“예, 얼마 전에 한번 갔습니다.” 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참 아름답지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니는 깊은 몽상에 잠긴 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례 비용을 현금으로 미리 냈어요. 내 장례식에서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고 테니슨의 시 ‘모래톱을 건너서’를 암송해 주세요. 지금 한 번 들어 봅시다!”

모든 눈이 저에게 쏠린 듯해서 돌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내쉬고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양과 저녁 별,  
그리고 나를 부르는 또렷한 소리!  
내가 바다로 나갈 때  
모래톱은 신음하지 않으리.<sup>11</sup>

지니는 온화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미소를 지은 후, “오, 토미,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내 장례식 전에 조금만 더 연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도중 언젠가는 비틀거리거나 힘없는 미소를 짓거나 병으로 고통 받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며, 추운 겨울이 오고, 죽음이 인류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이 죽음은 비틀거리며 걷는 노인에게 옵니다. 그 소환장은 인생의 여로에서 아직 반도 채 살지 못한 사람에게도 오며, 종종 어린아이의 웃음 소리도 사라지게 하곤 합니다.

매일 전세계 곳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들과 딸,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또는 소중한 친구들과 작별을 고하면서 슬퍼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잔인한 십자가 위에서 구주께서 그분의 어머니에게 고한



*저는 사랑과 동정 어린  
관심으로 굶주린 자를 먹고,  
혈뺀 자를 입히며, 집 없는  
자를 재워 주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봉사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부드러운 작별의 말은 특히 가슴 깊이 사무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sup>12</sup>

장례식의 꽃이 시들고 나면 친구들의 기원은 추억이 되고 기도와 말씀도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진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혼자임을 발견합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십대들의 소란이, 떠나간 배우자의 부드럽고 사랑어린 관심이 그리워집니다. 시계는 더욱 크게 똑딱거리고, 시간은 더욱 천천히 가며, 사방의 벽은 감옥 같기만 합니다.

저는 사랑과 동정어린 관심으로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집 없는 자를 재워 주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봉사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 평화의 인식처

주님의 동정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거룩한 성전은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이해를 초월한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지도력 아래 새로 건립된 성전과 건축 중인 성전의 수는 놀랍기 지어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과 장막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분의 동정 어린 관심에 대해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생애에 대해, 그분의 복음에 대해, 그분의 모범에 대해, 그리고 축복 받은 그분의 속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클라호마시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성전이 이 지상에서의 기쁨과 다음 세상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을 표시하기 위해 하늘에서 보낸 햇불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도시에 서게 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sup>13</sup>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sup>14</sup>

그분께서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참된 동정심의 살아있는 모범이신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엽시다. ■

### 주

- |                      |                    |
|----------------------|--------------------|
| 1. 창세기 39:2.         | 8. 요한복음 11:43.     |
| 2. 창세기 45:5, 7.      | 9. 제3니파이 17:7, 9.  |
| 3. 누가복음 10:30~37 참조. | 10. 요한복음 1:39.     |
| 4. 요한복음 5:8.         | 11. 1~4행.          |
| 5. 요한복음 8:11.        | 12. 요한복음 19:26~27. |
| 6. 요한복음 4:14.        | 13. 시편 30:5.       |
| 7. 마가복음 5:41.        | 14. 요한계시록 3:20.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가족 구성원 각자를 위해 하트 모양의 종이를 준비한다. 문송 회장님의 메시지에 있는 동정심의 모범을 언급하면서 가족들에게 공평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동정심을 보여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권유한다. 그들의 생각을 하트 위에 적어 보게 한다.

2. 이 기사에 있는 동정심의 몇 가지 예를 다시 이야기한다. 가족에게 다음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지금 바로 나의 동정심으로 인해 축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언제 시작할 수 있는가? 이 기사의 마지막 두 문단을 읽고 가족에게 동정심에 대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목표를 주면서 마친다.

3. 이 기사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말해 주고 그 안에 나타나는 공통 주제를 말해 보도록 부탁한다. 구주의 그림을 보여 주고 여러분의 삶에 미친 그분의 동정의 손길에 대해 간증한다. 가족에게 동정심이라는 선물을 주는 데 있어서 구주의 모범을 따르도록 노력하라는 목표를 준다.

# 선교사 훈련원



지금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리와 성약 38:40 참조)



#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교회 잡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블랙드 장로에게 청소년들이 전임 선교 사업을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으며, 봉사로부터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교회는 왜 모든 합당한 젊은 남성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요구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책임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사들은 사람들을 세상의 어둠에서 끌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안전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의 희생에 대해 별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내어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고 확인 의식을 베푸는 것은 신권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모든 젊은 남성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것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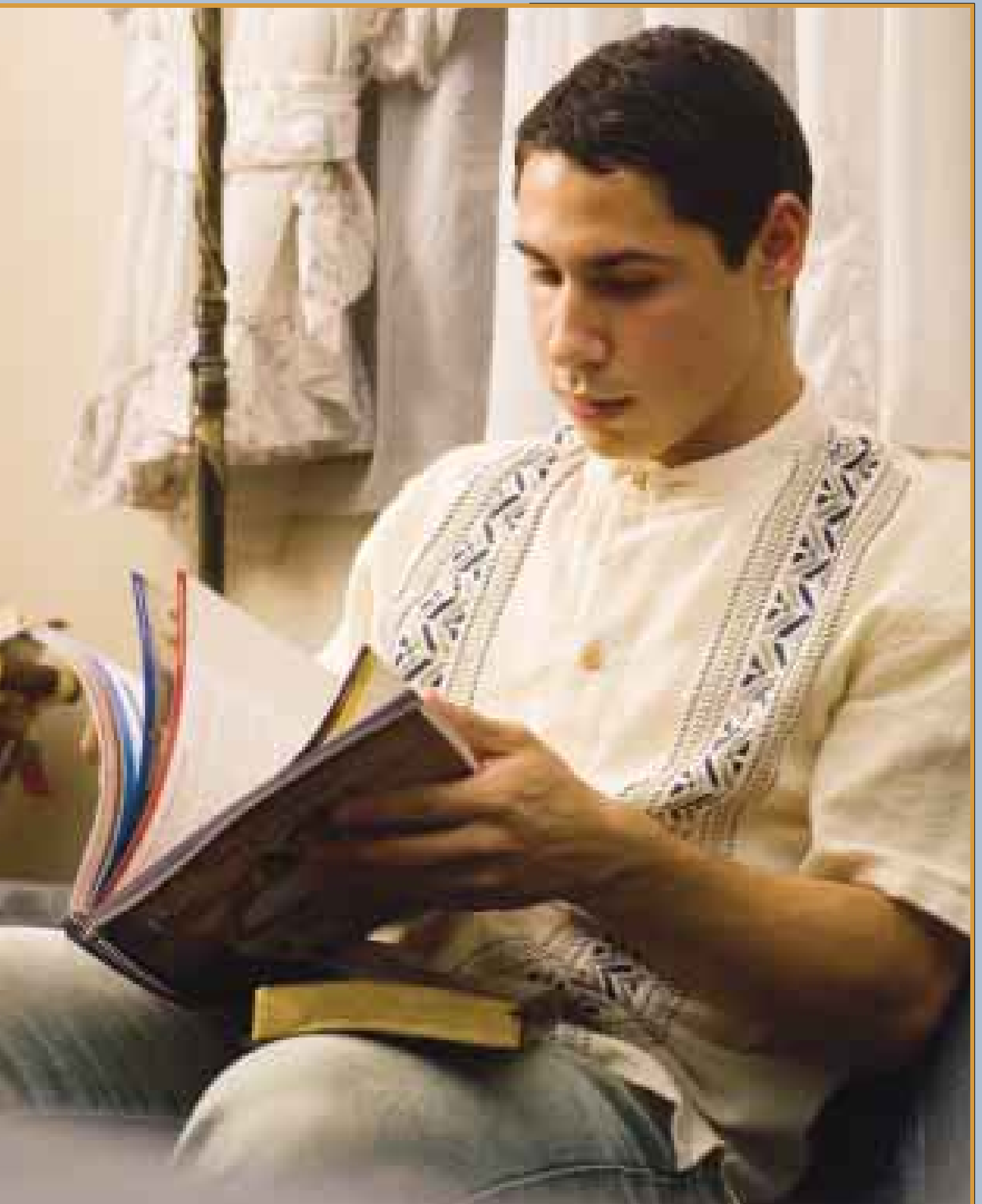
젊은 여성이 선교 사업을 하고자 하며 또한 이에 합당하다면 전임 선교

사업은 그들에게도 전적으로 적합한 일입니다. 신권을 소유하는 것은, 젊은 남성들이 회복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책임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젊은 여성들도 선교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고 받습니다. 만약 그들이 결혼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부름입니다. 그러나 봉사할 여건이 되는 젊은 여성들은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교사이며 동정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더욱 많은 자매 선교사가 와서 기뻐하지 않을 선교부 회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 사업을 위해 가장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 열쇠는 바로 태도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성장하여 세상적인 유혹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 이러한 유혹들이 그들의 마음 또는 정신 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종이 되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유혹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나누는 가정에서 생활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 정신은 부모와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가정에서 솟아납니다.

제가 새로운 선교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 선

교사들은  
자립심을  
가져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을 배워야 하며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선교 사업을 하는 18개월 또는 24개월이  
그들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전적으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바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선교사 규칙을 따르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교부 회장의  
권고와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에 나와 있는 지침과  
총관리 역원의 권고에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시간을 일부이라도  
낭비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권고를  
온전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 예비 선교사들이 그 외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사들은 교리를 이해해야 하며, 그  
교리를 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빈  
독에서는 물을 퍼낼 수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안다면, 다른 일은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나 영의  
권능에 힘입어 자신의 말로 가르칠  
수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감과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준비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모든 청남과  
청녀가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를 잘  
숙지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을 계발하고 회복의  
교리를 스스로 배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젊은  
청남뿐만 아니라 청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젊은 여성이  
결혼을 하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든  
간에 복음은 그녀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선교 사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선교사를 돕고  
선교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와 있는 지침을 공부하여 그것에 따르기를  
권고합니다. 선교사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와 있는 원리들에 따라 생활한다면,  
그들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영적인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 신체적, 재정적 및 정서적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들은 자립심을 가져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을 배워야 하며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선교 사업에서 요구되는 신체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체중을 잘 조절해야 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선교사 일과에는 매일 30분의 운동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은 정신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예비 선교사들은 일하는 것을 배우야 합니다. 그들은 일을 해서 자신의 선교사 비용을 모아야 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저축하여 선교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련한 선교사가 좀 더 잘 준비된 선교사가 될 것이라는 것에 모든 선교부 회장이 저와 의견을 같이할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위해 일하여 저축하는 것은 봉사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직업 윤리를 심어 줄 것입니다. 선교 사업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일입니다.

선교 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또한 청년과 청년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이 자신들이 어디로 보내지든, 어떠한 여건에 처하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점점 흥미를 잃어 가는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강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자신감을 가진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 제2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제2언어 공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언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스페인어를 배우고 타이완으로 부름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에서 오는 단련입니다. 제2언어를 배워 본 경험으로 그들은 부름 받은 선교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좀 더 쉬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그 부름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우선,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이 젊은 남성 혹은 여성을 접견하고 추천합니다. 그 후 스테이크 회장 또는 선교부 회장이 그 사람을 접견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 지원서는 전자우편을 통해 교회 본부로 발송됩니다. 지원서에는 사진이 첨부됩니다. 지원서가 도착하면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 사진을 보고, 지역 신권 지도자들이 적은 내용을 근거로 예비 선교사의 태도와 학교 성적과 언어를 배우려는 열의를 신중히 검토합니다. 사도는 또한 전세계 344개 선교부의 필요 사항을 고려한 후 그 선교사가 어디서 봉사해야 할지에 대한 영감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 회장의 지시 아래 이루어지며 그 부름은 회장으로부터

## 만약 전임 선교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또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남성과 여성은 전임 선교 사업에서 면제됩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선교 임지로 가는 것만큼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전임 선교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사람들을 찾아 교회에 들어오도록 도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학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에서 회원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며, 멋지고 충만한 삶을 살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현재의 사도들 모두가 젊은 시절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군복무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충실하고 의로운 모든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봉사하도록 도우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와드 선교사로서 감독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독의 창고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근처에 살고 있다면 성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단지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후, 그 일을 추진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옵니다.

**왜 어떤 선교사는 자신의 나라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으십니까?**

부름은 계시를 통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교사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봉사합니다. 모든 선교부에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버지니아 주에 살며 학교에서 리더였던 한 젊은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선교사 부름장을 열어 보고 자신이 솔트레이크시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왜 주님이 자신에게 그곳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자신에게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2002년에 우리는 선교사 봉사를 위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합당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에 대해 일찍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죄를 피해야 합니다. 물론 회개는 가능하며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들은 참되고 완전한 회개를 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고 해서 그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좀 더 철저하고 때로는 몹시 힘든 회개가 요구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간청합니다. 그러한 일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토록 힘든 회개를 해야 할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봉사하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감독이나 지부 회장으로 부터 합당하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봉사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승인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이 누군가가 합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사람이 부름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형제나 자매는 그 부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고 자신이 합당하고 능력이 있다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선교사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권능은 어떻게 받으니까?**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선교 지역에 들어갈 때 그들은 보통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훌륭한 동반자를 배정해 줍니다. 이 동반자들은 그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 그들은 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옴으로써 오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들은 위대한 구속 사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은 그들이 순종하고 헌신하며 열심히 일하고 열의를 다할 때 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영을 발산하는 자들로서의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안 것이 언제였는지 묻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장로들 또는 자매 선교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그들의 신앙의 힘을 느끼고

그들의 얼굴에서 발산되는 광채를 보았을 때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와 같은 영을 지닐 수 없으며, 영은 여러분이 노력했을 때처럼 선교사로서의 여러분의 봉사에 힘을 실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선교사들은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또는 그 이상의 것을 배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교사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법,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이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상인이나 그 밖의 어떤 사람이 되든,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은 그들 직업에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축복은 선교사들은 교리적인 면에서 속죄의 실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서는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을 통해 크게 축복해 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배움은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교리와 속죄의 실재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장차 교회에서 받게 될 모든 임무에서 그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큰 축복은 선교사들이 암흑에서 방황하는 가족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할 때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원치 않는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그들이 어떠한 가치관에 따라 생활하고 싶은지, 어떠한 가족을 원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자 하는지, 그리고 약속된 성전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떠한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해 줍니다. 선교 사업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그분의 선교 사업이 그분 일생을 통한 봉사의 토대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선교 사업이 교회를 인도하는 길에 그를 올려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힝클리 회장이 교회를 훌륭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회 역사상 온 세상의 젊은 남성과 여성이 일어나서 선교사로 봉사해야 할



**헌** 신적인 선교사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법,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웁니다. 선교 사업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입니다.

시기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하기에 충분한 젊은이들이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교회가 조직된 곳이면 어디서나 영혼들을 주님께 데리고 올 준비를 하는 젊은이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온 땅을 축복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을 통해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



# 선교사의 하루

따라 와서 선교사 생활의 축복과 어려움들을 한번 엿보세요.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자 일어나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찌르며 말한다. 여러분은 졸린 눈으로 침대 옆에 있는 시계를 본다. 오전 6시30분? 어떻게 된 거지? 잠깐, 저건 여러분의 시계가 아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의 침대가 아니다. 여기는 어디일까?

한 목소리가 말한다. “우리를 따라오고 싶어하셨죠. 하루 일과를 시작할 시간이예요.”

여러분은 침대 옆에 서 있는 선교사를 올려다 보면서 마침내 무슨 일인지 기억해 낸다. 교회 잡지는 여러분에게 하루 동안 선교사들을 따라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여러분은 선교사의 생활이 실제로 어떤지 볼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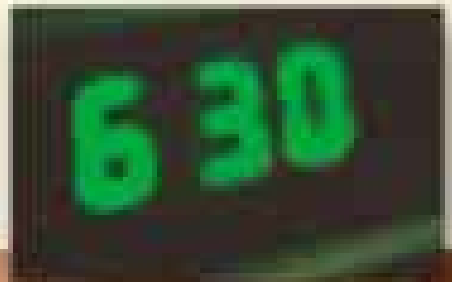
단지, 이렇게 이른 시각에 하루 일과가 시작될 줄은 몰랐을 뿐이다.

여러분이 몸을 일으켜 앉는 동안 키가 큰 그 선교사는 말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타에서 온 제시 워드 장로입니다. 스페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분은 저의 동반자 피에릭 트리플릿 장로입니다.”

트리플릿 장로는 프랑스에서 왔으며 그는 스페인어뿐 아니라 영어도 배우고 있는 중이다. 한꺼번에 두 가지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트리플릿 장로는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는 개종자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제 인생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변화를 겪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업은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6:41 a.m.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다. 여러분은 선교 사업이 인생에서 최고의 2년이 될 수 있다고 늘 들어 왔다. 오늘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오전 6시 41분.** 기도를 드린 후 선교사들은 한동안 운동을 한다. 워드 장로는 보통 팔 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심지어 가벼운 역도도 한다. 샤워하고 면도를 한 후에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식탁에 자주 오르는 메뉴는 차가운 시리얼이다.

**오전 8시 7분.** 선교사들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얻기 위하여 (교리와 성약 11편 21절 참조) 개인적으로 그리고 동반자와 함께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언어 공부와 개인 경전 공부를 마치고 나면 동반자와 함께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공부할 시간이다.

**9시 55분.** 선교사들은 하루가 시작될 때, 하루 내내 수시로,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계획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뿐만이



8:07 a.m.

아니라 각 구도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오늘 장로들은 프랑스에서 온 한 남성, 즉 그들이 침례 권유를 할 예정인 구도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걱정하고 있어요.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트리플릿 장로는 말한다.

두 선교사들이 꼼꼼이 생각해 본 후 워드 장로가 “회개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가 확실히 이해하도록 불어로 가르치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한다.

떠나기 전 장로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다. 이



9:55 a.m.





“참 좋은 사람인데.” 워드 장로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한다. “어쩌면 다음 번에는 침례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오후 2시 6분.** 선교사들은 또 다른 버스에 올라탄다. 이번에는 스페인 톨레도 지방의 유적지, 엘 카스코로 가는 것이다. 그들은 그날 밤 있을 활동 모임에 초대하기 위해 한 구도자의 사업체에 들른다.

“여기서는 주의하지 않으면 금세 길을 잃을 수 있어요.”라고 워드 장로가 말한다. 이는 보행자들의 머리 위로 솟아 있는 건물들 옆의 미로 같이 좁은 길들에 대해서 한 말이다.

기도는 그들이 오늘 드리게 될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이다. 선교 사업은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한다. 기도를 드린 후에는 집을 나서서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간다.

**오전 11시 9분.** 선교사들은 언제 어디서건 누구에게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누군가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선교사들은 한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소책자를 그에게 준다.

**오전 11시 21분.** 10분 동안 버스를 타고 잠시 걸은 후 선교사들은 그들의 구도자와 같은 시각에 임대한 집회소에 도착한다. 토론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구도자가 걱정이 많아 원래 계획했던 45분 동안의 토론은 한 시간을 넘기게

된다.  
나중에 트리플릿 장로는 “제가 해 본 토론 중에 가장 힘든 토론이었어요.”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 교회를 좋아해요. 우리 교회가 참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십일조도 내고 싶어해요. 하지만 그는 다시 침례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논쟁조로 이야기했죠.”



**오후 2시 24분.** 좁은 골목길을 따라 길을 찾다가 선교사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한 여자를 도와준다. 그들은 잠시 시간을 내서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지만 여자는 관심이 없다.

**오후 2시 47분.** 스페인에서는 낮잠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버스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piso*, 즉 그들의 숙소로 다시 돌아온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모두 문을 닫아 버려요. 문을 두드리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라고 워드 장로가 설명을 한다.

트리플릿 장로는 점심 식사를 포크로 찌르면서 “이것은 *chorizo*라고 하는 소시지예요. 많이 먹는 음식이죠. 값도



2:06 p.m.

싸고 요리하기도 쉬워서 우리는 국수와 *chorizo*를 많이 먹는답니다.”라고 말한다.

워드 장로는 쿨에이드(역자 주: 미국의 청량음료 분말)를 타면서 “선교 사업은 결혼 준비를 위해 좋아요. 함께 어울려



2:24 p.m.







4:59 p.m.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기분이었어요.”라고 트리플릿 장로가 말한다.

**오후 7시 45분.** 버스를 한 번 잡아타고 장로들은 같은 시에서 봉사하고 있는 캐슬린 보니페이 자매, 브리트니 호프만 자매와 함께 계획한 활동 모임으로 갔다.

그들이 올 것이라 예상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이럴 때도 가끔 있어요.”라고 워드 장로가 말한다. 그러나 몇 군데 돌아다닌 끝에 선교사들은 근처에 사는 다른 구도자들을 몇 명 모을 수 있었다. 찬송가를 부르고 비디오를 시청한 후 선교사들이 물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간증을 할 때 성신의 영향을 느낄 수 있었다. 성공적인



회원 수가 약 15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여기는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라고 말한다.

**오후 4시 59분.** 뜻밖에 약간의 시간이 남게 되었지만, 선교사들은 이럴 때 즉흥적으로 할 일을 찾아내는 것에 익숙하다. 그들의 대안은 길 전도를 하는 것이다.

**오후 5시 42분.** 많은 사람들이 2층 이상 되는 곳에 사는 엘 카스코에서의 가가호호 방문은 종종 발코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적지에서도 선교사는 개를 조심해야 한다.

장로들은 얼마간의 성공을 거두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파라과이에서 온 청소년이 몇 명 있었는데 우리에게 내일 또 와 달라고 했어요.”라고 워드 장로가 말한다. 그리고 얼마간의 실패도 있었다. “한 남자와 30분 동안

지내는 것, 요리, 청소, 세탁, 예산 세우기,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일들을 배워야 하거든요.”라고 말하며 웃는다.

**오후 4시 24분.** 다시 엘 카스코로 돌아와서 선교사들은 선교부 회장단 보좌를 만나 현재의 선교 활동에 대해 논의한다.

워드 장로는 한 가족이 우정 증진의 모범을 보인 덕분에 매주 교회에 나오는



5:42 p.m.

활동이었다.

보니페이 자매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라고 말한다.

**저녁 9시 13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장로들과 자매 선교사들은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날 하루와 장기 계획을 검토해 보고 다음날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달라질 것은 별로 없어요.”라고 워드 장로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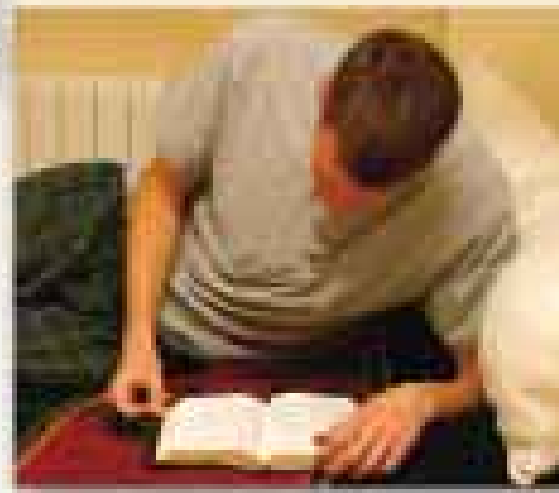
7:45 p.m.

9:13 p.m.

트리플릿 장로는 웃는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어요.” 장로들이 계획했던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는 잘 지나갔다. 그들은 몇몇 좋은 만남을 가졌고 영향력 있는 활동 모임을 잘 마쳤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했고 성신의 속삭임에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다. “사람들은 선교 사업 2년이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이라고들 합니다.”라고

트리플릿 장로가 말한다. “이 2년은 정말 멋진 시간이지만 그 730일이 제 생애에서 가장 멋진 날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날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선교사라는 사실이 정말 좋습니다.” 워드 장로도 동의한다. 그는 귀환에 대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저는 늘 집으로 돌아갈 때 기쁠 거라고 생각했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삶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어요. 저는 제 삶을 사랑합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매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귀환할 때 저는 기쁘면서도 슬플 거예요.” 여러분은 선교 사업이 어떤 것인지 맛보았다. 흥미진진한 면도 있지만, 선교 사업은 정말 고단한 것일 수도 있다. 이제는 휴식을 취하고, 선교사로서의 여러분의 하루를 준비할 때이다.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오곤 한다. ■



# 선교 임지에서 집으로 가져갈 선물



제가 모든 선교사들이 집에 가져가기를 바라는 10가지 선물은 바로 이 훌륭하고 영속적이며 놀라운 것들입니다.

##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오**래 전 저는 어떤 공항에서 귀환하는 선교사들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짐을 찾고 있었고, 저는 한 명에게 “이게 전부 뭐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집에 가져가는 선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즉 “선교 임지에서 집으로 가져갈 선물”이 된 것입니다.

### 1.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사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입니다.”(요한복음 17:3) 이 세상 누구에게도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분명하고 위안을 주는 확신보다 더 큰 은사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주님의 말씀인 경전에 대한 지식과 사랑

선교사 시절, 저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몬경을 몇 장 읽었고 제 가슴속에는 이 물몬경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에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겼으며, 이 확신은 그 이후로 결코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시된 이 성스러운 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간증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는 모든 선교사들이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참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봉사하던 지역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3. 깊어진 부모님에 대한 사랑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수백 차례의 선교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주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무척 좋지만, 또한 그들이 부모님에 대한 큰 감사와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경솔하고 무관심했던 아들들이 일어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대에 건강한 젊은이가 일어나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예전 같았으면 생전 하지 않았을 말들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은 얼마나 좋고 멋진 일입니까. 모든 아들들과 딸들은 부모님에 대한 더욱 큰 사랑을 품고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 4. 봉사한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

저는 영국인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들을 상대로 선교 사업을 했고 그들과 함께 살았으며, 그들의 집 난롯가에서 함께했고,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는 그 누구도 영국인을 비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시아의 사람들 또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11년을 보냈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그들 사이에서 겪은 경험 때문에 그 누구 못지 않게 아시아인들을 사랑합니다.

만일 선교사가 봉사한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큰 사랑을 품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 5. 근면의 가치에 대한 인식

모든 선교사는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는 것이 성취의 비결이자 인생에서의 성공을 위한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면, 즉 아침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마치기 위해 계속 일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자신을 수련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자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6. 우리가 합당하게 산다면 우리 각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우리들 각자가 영감을 받기 위해 합당하게 살고 준비한다면 우리들 각자는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로서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나타내시지 아니한 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니”(교리와 성약 121:26) 우리가 합당하게 산다면 성령의 권능으로 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틀림없는 확신, 이것이야말로 집으로 가져올 참으로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 7.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아무도 이 사업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짝을 이루어 일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린도후서 13:1)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선교 임지에는 주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대체로 팀을 이루어 펼쳐지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 8. 개인적 고결성의 가치

장래의 고결성과 관련하여 선교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 개인적인 고결성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의 영감을 받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전한 다음 약속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쉬지 말고 네 생각을 덕으로 장식하라.” 그것은 계명입니다. 그에 대한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교리와 성약 121:45) 그것이 덕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 9. 행하기 위한 신앙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니이다 하였더라.”(니파이전서 3:7)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엄청난 일들을 요구합니다. 때때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일은 수줍음 많고 소심한 젊은이가 해 내기에는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력한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그들은 하고자 하는 신앙, 행하기 위한 신앙, 앞으로 나아가 노력하기 위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집에 가져갈 참으로 훌륭한 선물입니다.

## 10. 기도하기 위한 겸손

우리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충분히 훌륭하지는 못하다는 것, 아무리 현명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현명치 못하며,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는 않다는 것,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제가 모든 선교사들이 집에 가져가기를 바라는 10가지 선물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많은 장식품, 수많은 인형, 수많은 깔개나 모피 혹은 드레스나 접시가 아닌, 바로 이 훌륭하고 영속적이며 놀라운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이와 함께 여러분이 하도록 부름 받은 일을 참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83년 6월 24일, 신임 선교부 회장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행한 연설에서 발췌.



# 귀를 기울여 영의 속삭임에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 어떻게 하면 영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나요?

**교리와 성약 8:2:** “나는 네게  
입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영은 ...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마음속의 느낌으로 울  
것이며 속삭임처럼  
부드러울 것입니다 ...



기도, 경전 공부, 교회 모임, 자신의 가정  
그리고 사람들과의 건전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기로 선택하십시오.  
("스스로 행함: 선택의지의 은사와 축복",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7쪽)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어려운 질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삶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

질문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번갯불처럼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영감을 얻는 식으로,  
“말씀에 말씀은,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교리와 성약  
98:12)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경전을  
읽음으로써 해답을  
얻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연사의 말씀을  
듣고 해답을 얻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일 경우, 때로는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감에 의해  
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Prayers and Answers",  
Ensign, 1979년 11월호,  
21쪽)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고  
생각되는 느낌이나 생각들을 적어  
보십시오. ... 여러분이 받은 진리가  
행동을 요하는 것인지 주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진리와 빛에 대해 더 많은 계시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A Life Founded  
in Light and Truth", Ensign, 2001년  
7월호, 13쪽)

내가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 영은 나를 어떻게 크게 할 수 있는가?

**일라이저 알 스노우(1804~1887년),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영]은 인간의  
마음이 바라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채워  
주며 모든 공허를 채워 줍니다. 제가 그  
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제 영혼은  
만족합니다. ...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마음에 지시를 내려 줄 것이고 여러분은  
서로에게 그것을 전해 줄 것입니다. ...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이며 시온에서  
여러분이 행할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Woman's Exponent,  
1873년 9월 15일, 62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러한  
속삭임에 따르는 여성들 ... 은 주님의  
손에 쓰이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  
가족을 유지하는 데,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인 활력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데 여러분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로운 여성",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42쪽)

**보니 디 파킨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우리가 영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감미로운 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감미로운 순간들”,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108쪽) ■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데이먼드, 포니텐 부부 재단; 가족 사진: 시진; 메튜 라이언, 모일리 포즈를 촬영한: 린다 러너 © SALTBEATS

# 전세계 곳곳의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



왼쪽: 멕시코 셀라야 스테이크 산 미구엘 데 아엔데 와드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활동에서 배운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오른쪽: 퀘벡 롱게일 스테이크 몬트 세인트 힐레어 와드에서 강화 모임 및 활동의 일환으로 자매들이 건강에 좋은 콩나물을 재배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왼쪽: 사진 촬영: 후안 카를로스 산토요; 오른쪽 상단: 사진 촬영: 로렌트 루퀴스; 위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오른쪽 사진 촬영: 아나 클라우디아 올리베이라; 배경 © 다이내믹 그래픽스, INC.

왼쪽: 유타 주 오렘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오래도록 즐겨 해 온 누비 이불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다.



왼쪽: 브라질 상파울루 와드에서 아델마 엠 린헤어스 자매가 봉사 활동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다. 이 강화 활동은 그 지역의 공립 병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 코니 디 캐넌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회

**보** 니 디 파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은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을 “안전하고 편안하며 즐거운 환경 속에서 마음과 손이 서로 결합하는” 장소라고 묘사합니다. 그곳은 모든 연령의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고 육아와 집안일에 대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자매들이 서로 사귀고 배우고 고양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시행된 2006년 1월 이후로 전세계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이 프로그램의 잠재력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 강화 모임

월례 모임을 갖는 대신, 모든 자매들을 위한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은 1년에 네 번 열린다. 그 중 한 번의 모임은

1842년 3월 17일 상호부조회가 조직된 것을 기념한다. 와드와 지부 모임에 덧붙여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상호부조회는 매년 한두 차례의 강화 모임을 갖는다. 이 강화 모임 중 한 번은 9월 연례 본부 상호부조회 모임 방송과 함께 열린다.

### 강화 활동

와드 또는 지부의 상호부조회도 관심사가 비슷한 자매들을 위한 정기 활동을 제공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어떤 활동을 제공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자매들의 필요 사항과 원하는 것에 응한다.

##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 모임

3 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강화 모임에서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영적인 힘을 강화시키고, 개인 기술을 발전시키며,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고, 봉사를 통해 자애를 실천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파킨 자매는 말한다. “이러한 모임에서 자매들간의 유대 관계는 강화되고 새로운 회원과 저활동 회원들이 서로 교제하며 선교 사업에 참여할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음은 스테이크와 와드들이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을 위해 활동한 사례이다.

한 와드는 “자매애, 사랑의 테피스트리”라는 프로그램으로 상호부조회 창립을 기념했다. 그것은 2002년 9월 본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하신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다. 저녁 식사 후, 8명의 자매는 상호부조회가 배움의 장소로서, 영원한 우정을 쌓고 자매들간의 사랑을 키우며 봉사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다.

한 스테이크 강화 모임은 간증을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스테파니 월키 자매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는 자애의 원리 중 하나인 친절에 기초하여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을 갖도록 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장단으로서 받은 이 영의 속삭임에 따라 실제로 이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데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제 보좌들은 자매들이 올 것이고, 그들이 일어서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와 주었습니다. 약 350명의 자매들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저녁 예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일어서서 그들의 삶에서 친절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다해 참으로 훌륭한 간증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난

후 자매들은 교회 건물을 떠나면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꼈으며 모임에 참석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또 한 곳의 스테이크에서 상호부조회 회장인 미키 네슬렌 자매는 재정적인 안정이 가족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와 스테이크 회장단은 각 와드를 돌면서 스테이크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을 개최하기로 계획했다. 모임은 재정에 대한 영적 공과로 시작되었다. 그 후, 자매들은 각기 정해진 다섯 군데의 장소를 돌면서 재정에 대해 잘 아는 자매들로부터 15분간의 발표를 듣도록 권유 받았다.

1. “예산 세우기”는 가계부와 봉투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기록하고 돈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 주었다.
2. “돈 절약법”은 매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다루었다.
3. “자녀를 위한 재정”은 모두가 참여하는 게임을 포함하여 자녀들에게 재정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 주었다.
4. “미래에 대비함”은 장애 보험, 노인들을 위한 요양 시설, 간호 및 퇴직에 대한 그 밖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검토했다.
5. “신용 대출의 대가”는 부채의 위험과 부채를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강화 모임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면에서 자매들을 교육하고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주

1. “여러분은 모두 하늘에서 보내졌습니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10쪽 참조.



캘리포니아 랭커스터 스테이크 주피터 와드의 한 상호부조회 자매는 “우리는 함께 웃어야 해요.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에서 자매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에는 균형이 잡혀요.”라고 말한다.

오른쪽: 필리핀 마카티 스테이크 마카티 제2와드의 상호부조회 활동 중에는 코코넛에서 기름을 짜는 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우루과이 타쿠아렘보 제1와드의 강화 모임에 참석한 자매들은 꽃꽂이 예술 공예를 배웠다.



왼쪽: 멕시코 발에 에르모소 스테이크 산 페르난도 제1와드의 엘비라 가르자 자매는 집에서 통조림 만드는 것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활동에서 통조림 제조법을 가르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아래: 멕시코시티 에르미타 스테이크 하르디네스  
와드에서 자매들이 함께 공부하며 배우고 있다.



왼쪽: 매년 7월,  
멕시코시티 차폴테펙  
스테이크는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여러  
개의 반을 개최한다.  
자매들은 그 주간 동안  
한 반을 선택하여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을 듣는다.  
여기서는 자매들이  
머리를 자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왼쪽: 우크라이나 오데사 첸트랄니 자부에서  
영적 공과 후에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하는 법에 대한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 아래: 브라질 바르셀로나 소로카바  
스테이크 보토란트 와드의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활동에서 능숙한 손놀림을 가진 자매들이  
손잡이가 달린 대형 손가방을 만들기 위해  
바느질하고 있다.



위: 브라질의 이 자매들처럼 전세계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비상시에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식품 저장법 및 그 밖의 대비  
기술을 배우고 있다.



#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활동 으로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활동들은 분기별 모임에 비해 거의 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활동들은 회장단의 지시 하에 전문가들에 의해 준비될 수 있다. 일부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활동이라는 개념을 어렵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평가해 보고 신권 지도자들과 논의하고 영감을 얻기 위해 기도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자신감을 얻었다. 몇 가지 좋은 아이디어 중에는 직접 할 수 있는 집안 수리법 배우기, 결혼 강화 강좌, 나의 복음을 전파하리를 이용한 학습 그룹,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자매들에게 점심 가져다주기, 불임을 겪고 있는 자매들을 위한 지원 그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타 케이즈빌 남 스테이크 새도우브룩 와드의 리셀 피어스 자매는 “저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우리가 더 작은 그룹으로 모임을 가질 때 어떻게 자매들을 단합하게 해 줄지 궁금했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마음이 있었다.”라고 적고 있다. “나는 일주일에 빵을 몇 번 굽기 때문에, 적절한 준비가 된 후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활동을 목적으로 우리 집에 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 다음 목요일, 다섯 명의 자매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들은 각각 인생의 다른 시점에 처해 있었다. 한 명은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고, 한 명은 일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중이었으며, 또 한 명은 나이 지긋한 자매였고, 두 명은 나처럼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 다음 두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통해 나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간증을 얻었다. 자매들은 밀을 갈아 빵을 만드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무척 친해졌다. 그들이 빵과 밀가루를 가지고 우리 집을 떠날 때, 나는 이 프로그램이 자매들을 아주 훌륭하게 단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빵 굽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중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나이지리아 우요 선교부의 이코트 에크페네 지부의 한 자매는 강화 활동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말한다. 그녀는 침례 받고 확인 의식을 받은 후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후 상호부조회의 한 자매가 강화 모임에 그녀를 초대했는데 그 모임에서 그녀는 자신이 사는 오지 마을에서는 구하기 힘든 비누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또 다른 활동에서 그녀는 집 근처에서는 구할 수 없는 품질 좋은 빵을 굽는 법을 배웠다. 자매들이 가정과 일요일 성찬식에 사용할 빵을 굽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그녀의 열의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관심 있는 자매들이 머리를 자르기 위한 몇 가지 기술을 배웠다. 돈을 절약하게 해 주는 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많은 자매들의 가족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한 독신 와드에서는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장로 정원회에 부탁하여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펑크 난 타이어 교체법과 자동차 오일 점검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이는 자매들의 자립심을 키워 주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청년 독신 회원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렇다면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의 새로운 지침들을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자매들은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지침들을 신앙과 열의, 그리고 창의성을 가지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영감에 찬 프로그램은 전세계 모든 연령층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삶을 계속 발전시켜 주고 축복해 줄 것이다. ■



#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신앙을 가짐

독신 여성으로서, 나는 주님이 우리를 우리만의 독특한  
시간표 안에서 지지해 주신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캐서린 에드워즈

**내**가 열아홉 살 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가 결혼을 했다. 결혼식은 훌륭했고, 친구는 아름다웠고 신랑은 미남이었으며, 그들은 행복했다. 반면 나는 마음이 약간 복잡했다. 나는 친구의 행동들이 놀라웠다. 친구는 그녀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관점을 바꾸고 있었다. 나도 분명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나는 우리 둘 다 모두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대학도 졸업하지 않고, 지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직업을 갖거나 많은 여행을 해 볼 기회를 갖기도 전에 결혼을 하려 하고 있었다. 친구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굳히 잠들어 있었던 반면, 나는 친구의 결혼식 전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나의 반응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나는 웃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 지금 친구의 삶을 보면, 그녀에게는 사랑스러운 두 자녀와 행복한 가정이 있다. 그녀가 결혼한 지 몇 달 후, 그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내게 분명해졌고, 지금은 더욱더 분명해졌다. 나는 그녀가 열심히 기도했고 깊이 생각했으며 그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속삭임을 신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거의 20년 전의 일이었다. 나는 여전히 독신이다. 내 친구의 대부분은 결혼했다. 그들에게는 남편과 아이와 가정이 있다. 내게도 집이 있다. 뉴욕 시에 있는 침실 두 개짜리 임대 아파트이다. 내게는 남편도, 아이도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친구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밤 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나에게 대한 걱정을 한 적이 있을까 궁금해 한 적도 있다.

내가 살아오면서 몇 가지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내 자신에게서 결혼의 축복을 앗아갈 만한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내가 더 잘 했더라면,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혹은 더 친절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나는 내가 좋은 일들을 했으며 영원한 관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성전 결혼에 대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자 노력한다.

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시간표를 알고 계시며 그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시간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 나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발전시키면서 나의 감사하는 마음은 더욱 커졌다. 그분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내 인생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내에 대한 그분의 계획에 관한 의문들은 내게 독특한 잠재력과 선함이 있다는 깨달음을 얻도록 해 주었다. 나는 종종 이러한 확신이 내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해 주는 염려에 의해 흔들린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내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느낌은 내가 열 아홉 살 때 결혼을 앞둔 내 친구에 대해 보였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나는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종종 사람들은 내가 왜 아직 남편과 아이가 없는지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들을 제시한다. 나는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 친절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지만, 그 내면에는 내가 결혼이나 자녀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어떤 실수를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하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너무 까다롭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똑똑해서, 또는 너무 커리어 지향적이거나 너무 독립적이거나 너무 자유로워서,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 즉 너무 행복해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하는 말들을 들었다. 물론 내가 때때로 이런 비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나는 결혼한 여성들 중에도 나보다 더

똑똑하고 강하며, 더 까다롭고 독립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

#### 제자됨의 목표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나는 나의 선택과 선택의지에 대해 매우 잘 인식하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결혼의 축복을 추구할 행복한 기회와 책임이 주어진다.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맡은 바를 하는 것이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나는 기도, 경전, 내가 참석하는 와드, 그리고 하나님과 구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주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같은 축복을 받고 있다. 이 축복 하나 하나가 내가 자신의 선택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나는 예상치 못한 기쁨과 도전에 대한 나의 반응을 포함하여 내가 내리는 결정에 지혜로움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나는 정기적으로 내 인생과 상황에 대해 평가해 본다. 이 자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합당성에 관한 문제이다. 나는 모임과 성전에 참석하고, 십일조를 내고, 유덕한 삶을 살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라는 교회의 교리와 관행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나는 구주의 속죄를 믿고, 계명과 선지자들의

**우** 리가 결혼을  
했던 이혼을  
했다,

배우자가 사망했던 아직  
결혼을 안 했던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신성한  
가계의 축복과 신성하고  
분명한 역할들이 있다. 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감사한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가 각자의  
흥미진진하며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알고  
계신다.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삶의 가치를 믿는다.

### 풍요로운 삶

나는 결혼을 강조하는 교회와 문화 속에서 미혼 회원으로서 어떻게 밝은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종종 질문을 받는다. 내가 한 일들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내 여동생인 크리스틴과 나는 어렸을 때 우리가 언젠가 꼭 결혼을 할 것이며, 결혼하기 전까지 더욱 원만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이 되도록 해 주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우리가 그런 계획,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소망과 관련된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느낀다. 그 계획은 기본적으로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계획이었다.

동생은 10년 전에 결혼했고 두 명의 훌륭한 자녀를 두었다. 그녀는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교회와 지역 사회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나는 계속해서 우리의 계획에 따라 살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내 삶의 목표가 구주의 제자됨이라는 더 큰 목표와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본다. 나는 영적인 면과 세상적인 면에서 나의 목표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딸로서의 나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게 해 주는 것들이 되도록 노력한다.

독신 후기 성도 여성으로서, 내게는 놀라운 방법으로 봉사할 기회가 있다. 내게는 봉사에 초점을 두는 직업이 있고, 나는 교회 부름들을 수행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재능들을 발전시켰으며,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나의 삶은 풍요롭다. 이렇게 살면서 나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의 속삭임에 따르고자 한다.

몇 년 전, 나는 내 연령대의 독신 여성 여섯 명과 함께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님이신 보니 디 파킨 자매님을 만나는 특별하고 예기치 못한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교회에서 독신 여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 한 시간 조금 넘게 이야기했다.

그 모임은 그 해 내 삶에 있었던 커다란 축복 중 하나였다. 파킨 자매님의 사무실에 있는 테이블에



돌러앉아, 우리는 삶의 도전 과제와 축복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끝에 그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손을 들고 이렇게 단언했다. “교회는 독신 여성으로 지내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 짧은 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충실함에 대해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나는 교회 안에서의 내 역할에 대한 간증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다. 그 전에도 나는 내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게 할 수 있는 그 토론의 자리가 필요했었다.

### 개인의 자신감

나는 교회에서 개인들이 사회적 제도에 의해 규정된 어떤 시간표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계시에 따를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 주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과, 그들의 삶이 달라 보일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한 가지 시간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것이라고 가정해 버린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도전 과제가 있다. 우리가 결혼을 했던 이혼을 했던, 배우자가 사망했던 아직 결혼을 안 했던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신성한 가계의 축복과 신성하고 분명한 역할들이 있다.

물론 나는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자녀를 갖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 동안에 나는 복음에 초점을 둔 삶의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독신 여성으로서 만약 낭비해 버린다면 감사도 모르고 태만한 사람이 될 지도 모를 축복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축복들이 궁극적으로 나를 더 좋은 아내와 엄마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감사한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가 각자의 흥미진진하며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나는 내 인생과 내 앞에 놓인 기회들에 대해 감사한다. 우리 각자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시간표, 우리의 훌륭한 결정들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지탱되는 시간표에 대해 확신을 갖기를 기도한다. ■

### 결혼과 주님의 타이밍



“결혼의 시기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계획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의 최고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지나 주님의 뜻과 타이밍에 의존해야 하는 세상의 다른 중요한 일들처럼, 결혼은 확신을 갖고 기대하거나 계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소망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혼 시기를 훨씬 넘어 독신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위해 준비하도록 해 줍니다.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삶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준비해 줍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고, 잃은 기회로 인해 오는 낙담을 극복해 나가도록 준비해 줍니다. 그러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지나 주님의 타이밍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우선순위와 표준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며 그러한 결심을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방향을 알려 주고 평안을 주는 일관성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결심과 표준은 한결같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독신 성인들의 결심과 봉사는 올바른 시기와 올바른 사람을 기다리는 어려운 시간을 통해 그들을 단단히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결심과 봉사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는 분들은 현명한 분들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 그러한 결심을 실행해 옮기는 일은 모든 사람의 통제 영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상관없이 우리가 결심한 것을 성취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심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 주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언제이든 우리를 강하고 충실하게 지켜 줄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주님의 타이밍”, *리아호나*, 2003년 10월호, 15쪽.

# 친구에서 자매로, 그리고 동반자로

발레리아는 우정과 모범을 통해, 그리고 항상 도움의 손길을 줌으로써 파올라를 복음으로 이끌었다.

레베카 밀스 휴과 브래드 윌콕스

**아** 르헨티나 산타크루스 리오 갈레고스의 발레리아 폰테예이는 친구를 개종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확신을 갖고 자신의 표준에 따라 생활했을 뿐이다. 그녀는 교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 했지만 어떤 일들은 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 친구 중 하나인 파올라 알바레스는 항상 발레리아를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며, 그녀가 얼마나 충실하고 일관되게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사는지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파올라에게는 훌륭한 가족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었다. 적어도 발레리아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파올라는 이렇게 기억한다. “발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간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애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자신이 고귀하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한 지식과 확신은 파올라의 삼촌인 모이세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선교사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그가 침례 받겠다고 발표한 날, 파올라는 약간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삼촌이 그의 삶에서 그렇게 큰 변화를 감행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가족 모두가 그의 침례식에 초대 받았지만 파올라는 참석하기가 망설여졌다. 그녀는

침례식이 어떨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가족들이 삼촌의 침례식에 함께 가도록 그녀를 설득했다. 파올라는 이렇게 기억한다. “삼촌이 침례의 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영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 영향력은 매우 깊었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순간 저도 하나님께 제 자신을 맡기고,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어졌어요.”

“애기 좀 할 수 있을까?” 파올라가 발레리아의 팔을 당기며 말했다. “난 우리 삼촌의 침례식에서 뭔가 특별한 걸 느꼈어.” 그녀는 조용히 설명했다.

발레리아는 친구에게 그녀가 영의 속삭임을 느낀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영은 너에게 삼촌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 파올라가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도와 줄게.” 그녀는 친구를 안심시켰다. 오래지 않아, 파올라와 그녀의 가족 모두는 선교사들을 만났고, 침례 받으라는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들의 삶은 영원히 변화되었다.

파올라는 말한다. “친구가 항상 따르던 표준이 이제 제 표준이 되었어요. 친구의 간증도 제 간증이 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파올라는 그녀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회원이 된 지 일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선교사 지원서를 작성하고 신권 지도자들과 접견했으며, 칠레 산티아고 동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발레리아는 이렇게 말한다. “친구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영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친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제 자신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발레리아가 파울라의 팔을 잡아당겼다. “네가 선교 사업을 하러 가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나는 뭔가 특별한 걸 느꼈어.”

파울라는 친구가 언젠가 자신에게 해 주었던 말을 했다. “영이 네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해 주고 있는 거야.”

발레리아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려는 계획이 없었다. 그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그녀는 파울라에게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도와 줄게.”라며 그녀의 친구가 안심시켜 주었다.

이후 발레리아가 자신의 부름장을 열어 보았을 때, 그녀는 친구와 똑같은 선교부에 가게 된 것을 알고는 놀랐다. 파울라는 2002년 10월에 봉사하기 시작했고, 발레리아는 2003년 2월에 합류했다.

선교 사업 기간 동안 그들은 대회와 활동을 통해 서로 자주 만났다.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서로의 지역에 대한 소식을 나누는 것을 즐겼다. 그들은 2003년

11월에 그들이 서로의 동반자로 지명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의 우정은 영원히 지속될 관계로 꽃피었다. 그들은 친구에서 복음 안의 자매로 바뀌었으며, 그리고 다시 선교 사업의 동반자가 되었다.

발레리아 폰테에이 자매는 말한다. “처음에는 함께 일하다가 우리의 우정에 금이 갈까 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날, 그런 느낌은 사라졌어요. 함께 일하는 이 기회는 우리의 관계를 강하게 해 주었을 뿐이고, 우리의 우정은 이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동의한다. 저활동 회원이었다가 이 두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인해 교회로 돌아온 한 여성은 말한다. “그 자매들이 서로에 대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갖는 사랑을 보면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게 그 자매들은 천사들이예요.”

파울라 알바레스 자매의 선교 사업이 끝나는 2004년 3월,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이 두 동반자에게 힘든 일이었다. 알바레스 자매는 아르헨티나로 돌아가는 것과 그 장래에 생길 모든 일들에 대해 긴장이 되었다. 두 자매는 약속 장소로 함께 걸어가는 동안 그런 염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 혼자선 할 수 없어.”라고 알바레스 자매가 말했다.

“걱정 마”, 그녀의 동반자로부터 친숙한 말이 돌아왔다. “내가 도와 줄게.” ■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 19살에 알았더 라면 ...

나는 선교사로서 몇 가지  
일들을 다르게 했을 것이다.

로저 테리

**나**는 1975년에서 1977년까지 독일 북부에서 봉사했다 이 2년은 참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었지만, 기억은 새로운 시각을 또한 가져다준다. 뒤늦은 깨달음이란 훌륭한 선물이기에, 나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네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동반자를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 우선순위로 삼는다.**

내 동반자들은 독특한 재능과 성격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어떤 동반자들과는 금세 친구가 되었으며 그들은 이후 계속 친구로 남았다.

어떤 동반자들은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는 나와 별다른



공통점이 없었다.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한두 명의 동반자에 대해서는 그다지 따뜻한 감정을 가지지 못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때로는 분위기가 차가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동반자들과 최소한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다. 우리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 재물, 그리고 노력을 희생하고 있었다. 만약 다시 할 수 있다면, 나는 우리의 성격이나 관심사가 얼마나 잘 맞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동반자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를 격려하고 비판적이 되지 않으면서도 내 열정이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만약 내 동반자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우선순위라면, 첫 번째 우선 순위는 무엇이나고 물을 수도 있다. 바로 순종이다. 동반자를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계명이나 선교부 규칙에 불순종하는 것에 동참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행히도 내 동반자들 중의 어느 누구도 불순종적이지는 않았다. 그 중 몇 명은 그다지 의욕이 없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비판이나 잔소리보다 더 필요했던 것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강화시켜 줄 사람이었다.

**2. 기적을 찾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당연히 여긴다.**

나는 선교 사업 임기 말에 선교부 사택에 앉아서 귀환하는 다른 13명의 장로들과 한 자매와 함께 가졌던 간중 모임을 기억한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른 장로들이 한 말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토르프 자매의

왼쪽 사진 촬영: 돈 엘 샬, 오른쪽: 맨 위: 사진 촬영: 크레이그 데이먼드, 오른쪽 포즈를 취함; 오른쪽 맨 아래 사진: 촬영: 로버트 제이시, 모델이 포즈를 취함

간증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18개월 전에 스테이크 회장님과의 접견에서 그녀가 마음속으로만 품어 왔던 소망을 밝혔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기적을 목격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녀는 그에게 털어놓았다. 그런 후 그녀는 사과하듯, 기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우리에게 그 대화에 대해 말해 주면서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다. “저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나 역시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음을 갑자기 깨달았지만, 나는 기적을 찾으려 하거나 기대하지는 않았었다. 나는 단순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을 뿐이었다. 기적을 찾으려 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마도 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했을 것이다. 기적은 신앙에 의해서 오며, 신앙은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예상하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만약 오늘 내가 봉사하러 간다면,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행하는 나의 일 가운데 주님께서 그분이 맡으신 부분을 해 주시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분은 기적의 전문가이시며, 기적이란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기적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려는 마음이 더 크다고 믿게 되었다. 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마도 선교사가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영향이 구도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한다.

**3. 더 현명하게, 더 열심히 일한다.**

내 첫 번째 구역 지도자의 좌우명은 “힘들게 일하지 말고 현명하게 일하라.”인 듯 했다. 나는 이 좌우명의 첫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내가 다시 선교 사업을

**나** 는 기적을 목격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주님은 기적의 전문가이시며, 나는 우리가 기적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려는 마음이 더 크다고 믿게 되었다. 우리가 맡은 부분을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서는 그분이 맡으신 부분을 행하실 것이다.





**내** 동반자와 나는  
함께 일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했다. 나는  
우리의 태도와 노력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성공하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믿는다.

한다면 분명 좀 더 현명하게 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 구역 지도자는 꽤 창의적이었을 뿐 아니라 꽤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가령, 그는 지부에서 청소년들 간에 배구팀을 조직했고, 그들은 함께 경기하기 위해 친구들을 초대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재미있고 간단한 방법이었다. 복음을 나누기 위한 이 부담스럽지 않은 접근 방식은 가르칠 기회와 개종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나는 아마도 주님의 사업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너무 엄격하고 제한적인 정의를 내렸던 것 같다.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진지한 구도자를 가르치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게으르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어떤 일이 주님의 일로 간주되기 위해 꼭 힘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내가 선교사라면, 나는 선교부 회장님의 지도에 따라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 4. 거절과 실패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다.

선교 사업 시절, 거절과 실패는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만큼 일상 생활의 일부였다. 거절을 예상하고, 구도자들이 메시지에 대한 관심을 잃으리라는

것을 예측하기란 쉬웠다. 그러나 어느 도시에서 다섯 주를 보내면서 나는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 도시에서는 아무도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동반자와 나에게 그 말을 해 주는 것을 잊었다. 우리는 아주 훌륭하게 해 냈다. 열심히 일했고 즐겁게 지냈다. 우리는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는 그 작은 지부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성공적인 구도자 반을 가질 수 있었다. 사람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황금 도시에서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느꼈다.

왜 우리는 그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 나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성공하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믿는다. 나의 동반자와 나는 함께 일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 도시가 채굴되기만을 기다리는 금광이라고 믿었다. 태도는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앙은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신앙은 전염된다.

불행히도, 나는 이 교훈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나는 수고의 열매와 일하는 방식을 연관짓지 못했다. 그 결과, 나는 이 원리를 그 다음 두 선교 지역에서는 효과적으로 적용시키지 못했다.

내게 다시 한 번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마도 예전과는 다르게 할 일들이 그 밖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네 가지가 가장

분명히 떠오른다. 이 제언들을 주의 깊게 살펴 본다면, 여러분은 그것들이 주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명시해 주신 자격 사항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과 함께 신앙, 소망, 자애와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자격이 있게 하느니라. 신앙,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애, 겸손, 근면을 기억하라.” (고리와 성약 4:5~6) ■





#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고원용 장로  
칠십인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병자와 불구자들을 치료하고, 심지어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는 등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기적은 아마도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일 것입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13~21; 마가복음 6:34~44; 누가복음 9:12~17; 요한복음 6:5~14) 이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왜 중요한지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 구주의 동정심

구주께서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심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며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마가복음 6:34)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빈 들”에 있으며 “날도 저물어”(마가복음 6:35) 음식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분의 제자들을 시험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권능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요한복음 6:5) 그분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면서) (요한복음 6:6)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어쩌면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후 제자들은 한 소년이 갖고 있던 음식, 곧 그들이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인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소년은 배가 몹시 고팠지만 자신을 걱정하기보다는 위대한 스승을 위해 음식을 아껴 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것은 기적을 위한 위대한 배경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했을지도 모릅니다.

## “그 모든 사람[이] … 떼를 지어 앉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한 가지 임무를 더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마가복음 6:39~40)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왜 사람들에게 이같이 앉도록 명하셨을까요? 분명 그분은 음식을 배분하는 과정이 질서정연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르스 알 맥쿱기 (1915~1985) 장로님은 우리의 이해력을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이나 행하심에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양식에 초점을 두지 말고 더 중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 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직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먹이셨습니다. 이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신성한  
가르침입니다.

비공식적이거나 비조직적인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인 회중은 모두 정연한 방식으로 무리나 열을 지어 앉았습니다. 그분의 자선은 무질서한 군중에게 무차별적으로 흠뿌려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답을 구하려 온 청중에게 꼭 필요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구할 수 없는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또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어떤 이의 마음에도 의문의 여지가 남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공정하고 공평하며 질서정연하게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sup>1</sup>

나아가 저는 주님께서 빌립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기적이 행해졌을 때 얼마나 큰 무리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이 위대한 기적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수에 대해 어떠한 논쟁도 없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자와 아이들의 수는 세지 않았기 때문에 군중의 수는 실제로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5,0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기적적인 식사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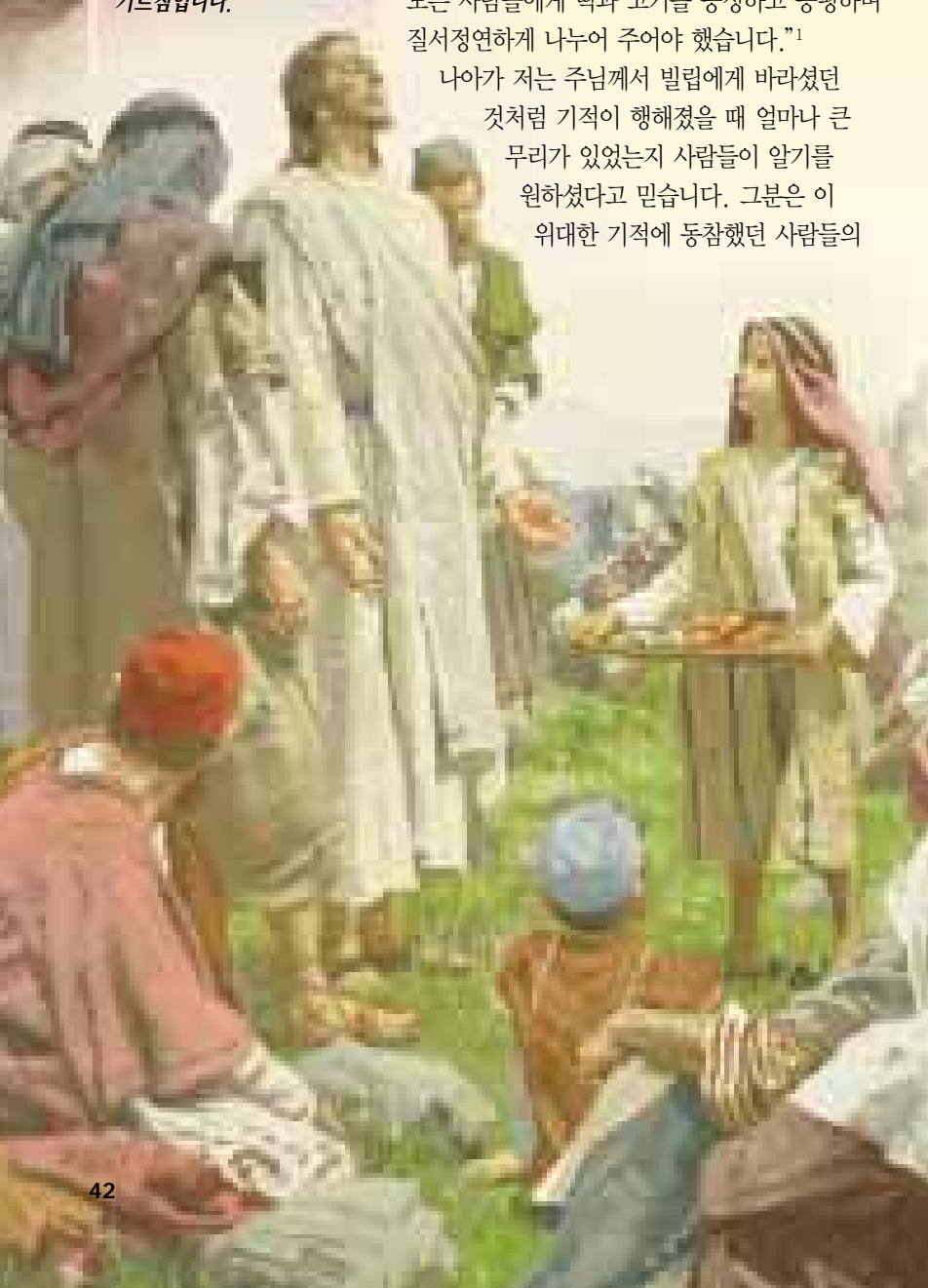
구주가 다섯 개의 떡과 고기를 가져가신 후에,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마가복음 6:41)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이 부족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며 조금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원대로”(요한복음 6:11) 먹었으며,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마가복음 6:42)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또 다른 가르침을 더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요한복음 6:12)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열두 바구니나 되는 음식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끝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6:14)

### 영적인 자양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구주께서 후에 가르치신 내용에 대한 전주일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기적을 극적인 방법으로 행하셔서 사람들이 분명하게 그분이 위대한 권능을 지니셨음을 알게 하였으며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더 잘 준비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떡과 물고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양식에 초점을 두지 말고 더 중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요한복음 6:27)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아직 그들이 먹은 떡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6:35)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요한복음 6:48, 50~51)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말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수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권능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요한복음 6:67) 베드로는 강력하고 간절한 간증으로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요한복음 6:68)

구주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신성한 본성과 사명을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준비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적이거나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끌던 열두 제자들은 예수께 그들의 분명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 커다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며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알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와 그분의 말씀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우리 시대에 시사하는 중요성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의 기적이 옛날이야기일 뿐이며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이 기적적인 이야기의 요점을 놓치고 “생명의 떡”의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일시적인 성공이나 학식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생의 떡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식욕 부진에 빠짐으로써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sup>2</sup>

성경 사전은 기적이 “신성한 행위일 뿐 아니라 신성한 가르침의 일부를 형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732쪽; 또한 경전

안내서, “기적”, 42쪽 참조) 떡과 물고기의 기적은 이 정의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예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직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먹이셨습니다. 이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신성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며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알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것과 같이 그분께 나아와 그분의 말씀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그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소모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좌절과 상실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 알도록 도와주세요. ■

### 주

1.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6~1973년), 1:344.
2. “주리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리아호나*, 1998년 1월호, 65쪽.



## 펜팔과 구도자 소개

브리트니 존스 빔

**내** 동반자는 내게 봉투를 하나 건네 주며 이렇게 말했다. “존즈 자매님, 이거 자매님 것 같은데요.” 나는 발신인 주소를 보았고, 모퉁이에 깔끔하게 적혀 있는 내 사촌의 이름을 보고 기뻐했다. 나는 프랑스 남부 한 쪽에서 그 건너편의 새로운 도시로 막 이동했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 내 새 주소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고, 8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한 프랑스 펜팔 친구로부터 최근에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는 사촌의 짧은 글을 읽었다.

사촌과 셀린은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 수업과 영어 수업에서 서로 주소를 교환했지만, 실제로 편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사촌은 셀린의 이메일을 받고 무척 놀랐다. 그녀는 셀린이 내가 봉사하고 있는 프랑스 남부에서 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능하다면 그녀에게 연락할 것을 내게 부탁하면서 그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었다.

나는 그 지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반자에게 그 글을 건네 주며 내 사촌의 펜팔 친구가 그 선교부 지역에 사는 것인지 물어 보았다. 그러자 동반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선교부 경계 내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에 살고 있어요!” 마음이 들뜬 우리는 셀린에게 전화해서 우리를 소개했고, 그녀는 우리와 만나는 데 동의했다. 우리는 몬토반으로 짧은 기차 여행을 했다.

우리가 기차에서 내리자 셀린과 그녀의 부모님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그들은 우리를 집으로 초대했으며, 메시지를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가 그들에게 몰몬경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가르치자 영은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증거를 전해 주었다. 그 가족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고 긴 토론 후 우리는 몰몬경을 한 권 주고 기도한 다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다.

그것이 셀린과 그녀의 가족과의 여러 차례 만남 중 첫 번째였다. 나의 선교 사업은 그들이 교회에 대해 배우는 도중 끝났지만, 셀린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전 나는 그녀에게 왜 팔 년이나 지난 후 내 사촌에게 연락하기로 했는지 물었다. 나는 그녀의 대답에 놀랐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면서,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작은 종이 조각 위에 써 있는 그녀의 주소를 발견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는 것을

**나** 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주소가 발견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랜  
인연이 이어지도록  
허락하신 방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하게 느꼈어요.”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차창을 내다보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잃어버린 주소가 발견되도록 하시고, 예상치 않던 이동 때문에 새로운 도시로 가게 된 내 선교 사업의 마지막 6주, 바로 그때 그 오래 전의 인연이 이어지도록 하신 방법에 대해 생각하며 놀라워했다.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시며 펜팔 친구의 주소와 같은 작고 간단한 것으로도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실 것이다. ■

## 절대로 늦지 않았음

실비아 데 모스쿠이 말도나도

**내** 조국 에콰도르에서 전임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일 특별한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실한 느낌을 받았다.

동반자와 나는 걸어가다가 한 초라한 집에 이르렀다. 80세쯤 된 듯한 나이 드신 할머니가 내게 사랑스런 미소를 지었고 나도 답으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계속 걸으려 했지만, 그 할머니는 우리를 만난 것이 정말 기쁜 듯해 보였다. 무엇인가가 내게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속삭였다.

그 작은 마을에는 문맹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할머니에게 글자를 읽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읽을 수 있다고 열성적으로 대답했다. 내 마음은 갑자기 들뜬 기분으로 가득해졌다. 나는 그 할머니가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치기를 원하신 사람임을 느꼈다. 나는 가방에서 물문경 한 권을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 드렸다. 나는 할머니가 안경을 쓰지 않고도 첫 페이지를 큼 소리로 읽기 시작했을 때 놀랐다. 나는 할머니에게 그 책이 갖고 싶은지 물었고, 할머니는 다시 한번 그렇다고 대답했다. 할머니의 지친 눈, 오랫동안 더 나은 삶을 찾고 있던 눈에서 행복이 빛을 발했다.

우리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영은 복음의 참됨에 대해 할머니에게 증거해 주었다. 참으로 온화한 느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우리가 토론을 마칠 무렵, 나는 미대륙에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 주는 제3니파이 11장을 보여 드렸다. 할머니는 그 부분을 읽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직접 그 페이지를 표시한 후, 말할 수 없는 기쁨에 가득 찬 듯한 표정으로 웃으며 책에 입을 맞추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구도자를 위해

방문을 계속했고 그녀가 우리가 지정해 준 모든 부분을 다 읽는다는 것을 알고 무척 기뻐했다. 할머니는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밤 늦게까지 물문경을 읽곤 했다. 또한 교회 모임 장소로 천천히 걸어가는 데 2시간이 걸리지만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물문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할머니의 느낌은 빠르게 커졌으며 깊어져 갔다. 선교사 토론을 모두 들은 후 그녀는 침례를 받고 십일조를 내고 싶어했다.

이 소중한 여성이 받은 축복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녀의 마음은 주님과 그녀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영을 따르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사랑, 용기, 희생, 기쁨, 그리고 순종을 가르쳐 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우리에게 변화하기에는 언제라도 결코 너무 늦지 않음을 가르쳐 주었다. ■





**만** 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영을 따르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 영의 언어로 이야기함

세르지오 아드리안 로페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남 선교부에서 봉사하던 알레드 장로와 나는 러시아에서 온 한 가족에게 연락하도록 구도자 소개 카드를 받았다. 우리가 그 집을 찾았을 때 그 집의 부인이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녀의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우리는 발바 가족이 스페인어를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으며, 우리는 그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얼마 안 되는 스페인어 실력으로 말한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그들이 아르헨티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회에 대해 배우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첫 번째 토론을 단순한 스페인어로 전했고, 우리가 메시지를 천천히 가르치는 동안 그 가족은 그들의 두 권의 러시아어-스페인어 사전을 사용했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들이 메시지를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알 수 없었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한 후, 우리는

집으로 걸어오면서 우리 메시지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 가족이 다른 토론을 더 잘 이해할지, 아니면 힘들어서 우리에게 그만 오라고 할지 궁금했다.

우리는 다음날 발바 가족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한 그들이 물문경 읽기와 그 책의 참됨을 알기 위해 기도를 시작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방문했다. 놀랍고 기쁘게도, 그들은 들뜬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원리들을 스페인어로 적은 종이 한 장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또한 제3니파이 11장에서 읽었던 구주의 미대륙 방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와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전날 우리가 토론했던 모든 것을 이해했으며 더 배우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그 다음 몇 주 동안 성신이 발바 가족에게 복음의 참됨에 대해 증거하며 그들의 스페인어 실력을 향상시켜 주는 모습을 보며 나의 간증은 강화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의 마음의 소망을

알고 계셨으며 진리를 찾는 그들의 기도의 진심을 인식하셨다. 발바 가족과 알레드 장로, 그리고 나, 우리 모두는 교리와 성약 50편 22절에 나와 있는 그 기쁨을 경험했다. “그런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같은 언어로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만유의 언어인 영의 언어로 이야기했기 때문이었다.

발바 가족은 우리에게 다른 러시아인 가족을 소개했고 우리는 그 가족 또한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두 가족 모두 우리가 만난 지 오래지 않아 침례의 물에 들어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었다.

나는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 (1899~1994년)의 말씀이 참됨을 보여 주는 한 증인이다. “영의 영향력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영을 따르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신임 선교부 회장 세미나, 1986년, 6월25일)

## 천 명의 영혼 중 첫 번째

노리에 츠바키 무라에

**일** 본 후쿠오카 선교부에서 봉사 중이던 내 동반자와 나는 쿠마모토 역 근처에 위치한 카스가라고 알려진 한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종교에 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이를 알고 계셨던 우리 선교부 회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쿠마모토에는 주님에 의해 준비된 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저활동 회원, 아마가타 노보루 형제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집에 다가가며 우리는 일본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고인 “종교적 방문 사절”이라고 적힌 문구를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속삭임에 따르며 문을 두드렸다.

아마가타 형제의 어머니는 문을 열고서는 아들이 다른 지역에 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아가 일본의 가족들이 전통적으로 그렇듯, 그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안으로 초대했다. 그러나 표면적인 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은 거칠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그녀는 “나는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라고 경고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삶에서 특정한 가치관들에 대해 얼마나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신앙과 사랑과 그리고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 기회를 포착해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의 신앙 때문에 주어진 영광스러운 시현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복음의 회복에서 몰몬경이 가진 중요성을 설명했다.

아마가타 부인이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를 보는 것은 흥미로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과 조셉 스미스를 통한 복음의 회복에 대해 간증했을 때 눈물이 그녀의 뺨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조셉 스미스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군요.”라고 대답했다.

우리가 마침내 작별 인사를 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여러분을 제게 인도한 게 틀림없어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악수를 했고,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다. “오늘 저는 손을 씻지 않을 거랍니다!”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는 이 여인이 우리 선교부 회장님이 이야기했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영은 분명 그녀가 우리의 메시지를 듣도록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켰고 우리는 그녀가 우리가 찾아야 하는 천 명의 영혼 중 첫 번째였다는 것을 알았다. ■

**우** 리 선교부 회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에 의해 준비된 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온과 화합을 가져다주는 잡지**

우리는 *리아호나*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잡지가 우리의 영에 평온을, 그리고 가족 관계에 화합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잠들기 전 진리에 기반한 이야기를 읽어 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잡지를 이야기 책으로 활용합니다.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이 잡지에 담긴 회복된 복음의 단순한 메시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카줄라 가족, 스페인

**신앙의 간증**

저는 이 놀라운 잡지 *리아호나*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잡지를 통해서 우리는 전세계에서 오는 신앙의 간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우리 형제자매들로부터 오는 이러한 교통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화해 줍니다.

일카 오디에르노, 브라질

**결혼 생활을 보살핌**

저는 2006년 5월에 발행된 연차 대회 말씀에 대해 감사드리고 특별히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의 말씀, “결혼 생활을 보살핌”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알레스와 저는 지난해 필리핀 마닐라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결혼한 모든 부부가 겪는 어려운 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넬슨 장로님의 메시지는 결혼 생활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결혼 생활을 강화하고 소중히 여기며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정말 시의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위해 주님에 의해 부름 받은 사도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알베르토 르벤 시 레이에이스, 필리핀

**나의 지식을 강화해 줌**

저는 *리아호나*가 있도록 해 주는 분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분들께 저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휴 비 브라운 회장님의 복음 고전 기사,

“선지자의 특성”(2006년 6월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 시대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지시 하에 조직된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라는 제 지식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에르윈 에이 파도, 필리핀

**희망, 용기, 그리고 영적인 힘**

저는 73세입니다. 저는 우리의

선지자와 모든 총관리 직원들과 교회의 지역 지도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특히 저는 매달 우리를 위해 제공되는 *리아호나*의 아름다운 메시지들을 준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희망, 용기, 그리고 인생의 유혹에 맞설 수 있게 해 주는 영적인 힘을 줍니다.

오틀리아 페레이라, 포르투갈

**위안**

다른 잡지와는 달리 *리아호나*는 제게 가르침을 줍니다. *리아호나*의 이야기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좋은 일을 하도록 해 줍니다. 때때로 제가 마음 상해 있거나 우울할 때, *리아호나*를 읽으면 위안을 받습니다. 이 잡지는 제가 역경과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 주고 저를 강화해 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지키도록 해 줍니다.

비니 마양, 필리핀

**다음 호 예고**

1989년 1월,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1906~2004년) 장로는 병세가 악화되어 앰블런스 타고 두 차례의 복부 수술을 받았던 병원으로 실려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 가기 전, 심각한 고통은 그를 기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더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억에 남은 것은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그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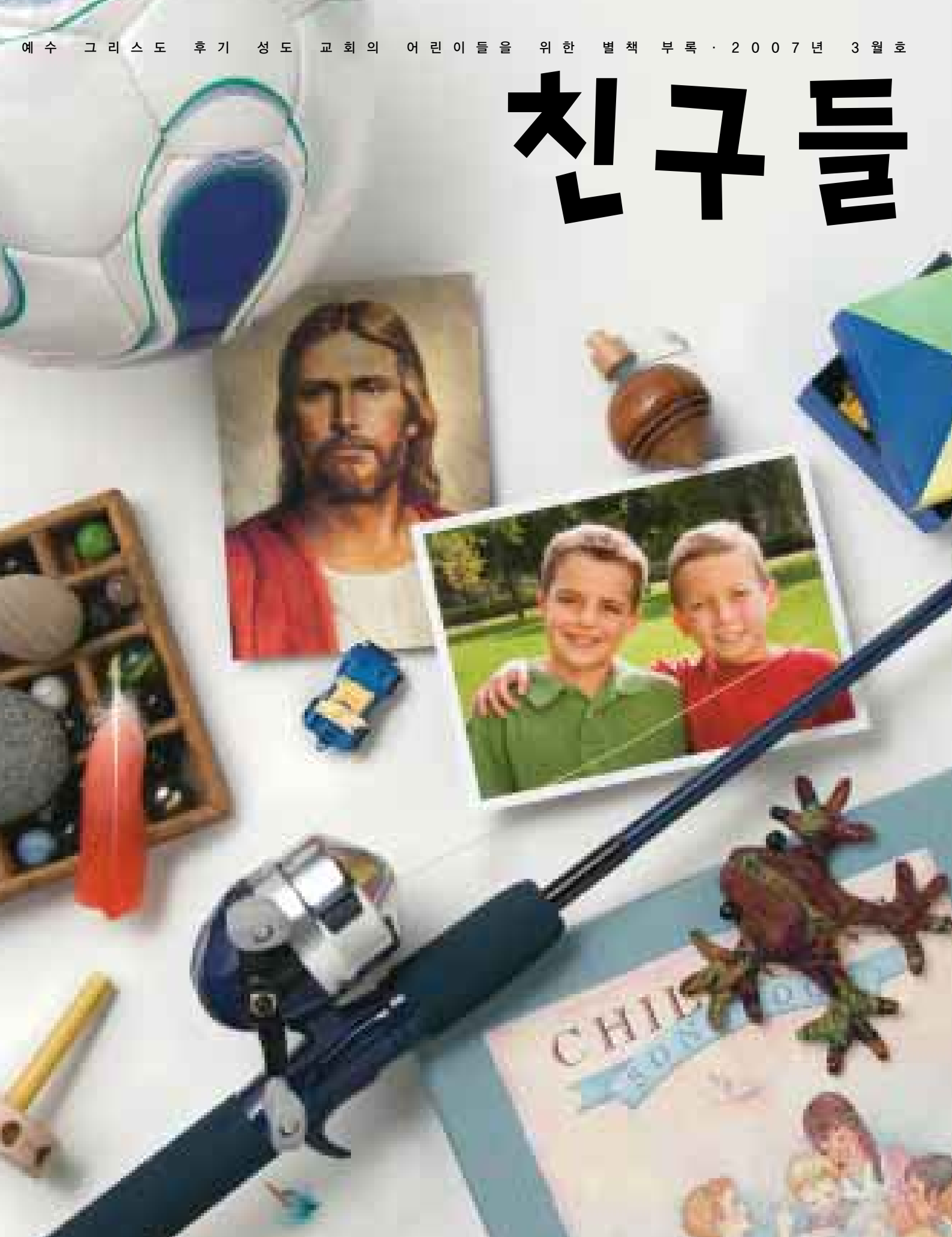
고통은 멈추었고 그는 한 평화스런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룩한 면전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달 *리아호나*에서 다음의 복음 고전 기사를 찾아 보십시오. “성찬-그리고 희생.” 이 기사는 구주에 대한 헤이트 장로님의 간증과 그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배웠던 내용을 전해 줍니다.

주님의 선지자의 일부: 데이비드 린슬리, 복사 글자: 테두리 © 포토스팀

# 친구들





# 더욱 쉽게 용서함

## 고든 비 힝클리 회장



힝클리 회장은 사랑과  
용서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데저렛 모닝 뉴스에 제이 이븐슨이 쓴 기사를 오려 놓았습니다. 그의 허락을 얻어 그것을 인용하겠습니다.

한 십대 청소년이 질주하는 차에서 당신 차의 전면 유리로 약 9킬로그램의 냉동 칠면조를 던지기로 작정했다면 당신은 그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찢긴 얼굴을 봉합하기 위해 금속판과 다른 기구들을 사용한 여섯 시간의 수술을 견뎌 낸 후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피해자 빅토리아 루블로는 보복보다는 오히려 가해자인 19세의 라이언 쿠싱의 인생을 구제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감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쿠싱이 2급 폭행으로 감형을 받을 경우 군 형무소에서 여섯 달을 복역하고 5년 집행 유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장 적절한 죄목인 1급 폭행으로 선고를 받았다면 그는 형무소에서 25년을 복역했을 수도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쿠싱은 재판정에서 조심스럽게 머뭇거리며 루블로가 앉아 있는 자리로 가서 눈물을 흘리며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너무나 죄송합니다.”라고 사과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 다음 루블로가 일어났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가 흐느끼는 때에 그의 등을 두드렸으며, 증인들은 그녀가 “난 괜찮아요. 이제는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길 바래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이 여성에 대해 찬사 이외에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사랑과 관용이 포함된 용서는 놀랍게도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위대한 속죄는 용서의 최고의 행위였습니다. 구주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드렸을 때 그 고난이 너무 크고 고뇌가 너무 격렬하여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곤 그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얻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온 인류에게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 주어지게 된 것은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 영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그분과 그분의 위대한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좀더 친절해지고, 더 많이 용서하고 오래된 원한을 잊고 그러한 감정을 더 이상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

2005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주

1. “Forgiveness Has Power to Change Future”, *Deseret Morning News*, 2005년 8월 21일, AA3쪽.



### 생각해 볼 점

1. 여러분은 빅토리아 루볼로의 용서가 라이언 쿠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2. 힝클리 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겪으셨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는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3.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또는 그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도록 계속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출생

영생

다른 사람에게 잘해 준다

누군가에게 못된 말을 한다

초등학교 노래를 부른다

화를 내고 나쁜 말을 사용한다

교실에 간다

상업 영화를 본다

장난감에 돈을 쓴다

정숙한 옷을 입는다

유형하고 있지만 정숙하지 않은 옷을 입는다

아침저녁으로 기도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



#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나를 따르며, 너희가 본 바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라.”(니파이후서

31:12)

엘리자베스 리스



옛날 사람들은 친구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 정원에 멋진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걷고 길을 헤매다가 나가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만한 통로들이 생기도록 울타리를 조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커다란 정원 미로를 통해 산책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그러한 길에서 헤매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산책을 즐겼고 끝에 가서는 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했습니다. 정원 미로는 아직도 존재하며, 방문자들은 그 미로들을 통해 길 찾기를 즐깁니다.

방문자들이 길의 모든 분기점에서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원 미로를 통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인생에서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파란색 셔츠를 입든 빨간색 셔츠를 입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말할 것인지 거짓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위해 여러분이 자신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우리는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옳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분의 모범을 따를 때 자랍니다.

## 활동

손가락으로 정원 미로를 통해 길을 따라간다.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결정한다. “출생”에서 시작해서 “영생”에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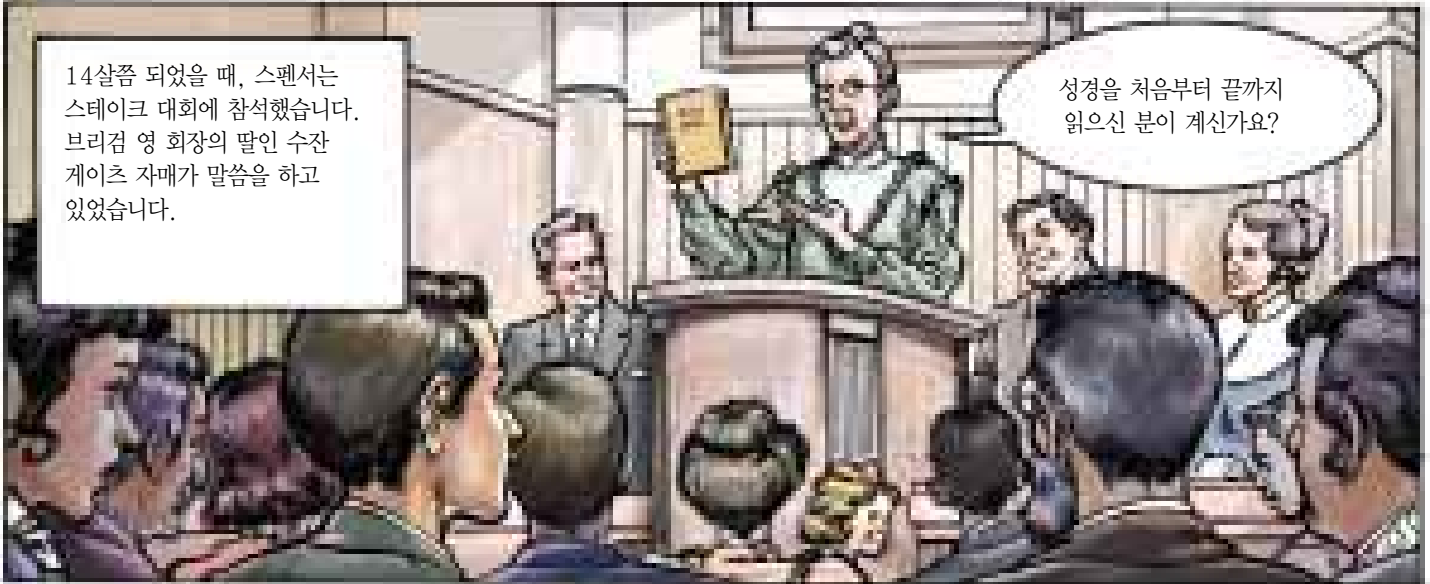
##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제언

1.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예를 들어 보여준다. 예를 들면, 선생님은 학생들이 다른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수학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축구 코치는 공 차는 법을 보여 주기 위해 공을 찰 수도 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사례 연구를 준비한다. (“사례 연구,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년], 165~166쪽) 각 반에 한 가지 사례 연구를 준 후 그것으로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각 반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보고하도록 한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노력하는 것이 그 비결이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노력을 요구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간증한다.

2. 어린이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보여 주도록 감독 또는 지부 회장(또는 감독단 또는 지부 회장단의 다른 일원)을 초대한다. (낯시 면허 또는 결혼 증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면허증을 얻기 위해 요구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그가 훨씬 더 중요한 종이 하나를 보여 주도록 한다. 그것은 바로 그의 성전 추천서이다. 그가 어린이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게 한다. 사람이 성전에 가기 위해 따라야 하는 복음 원리와 발자국 수가 적힌 종이 몇 장을 준비한다. 예를 들면, “지혜의 말씀을 지킨다-두 발자국 앞으로 나간다. 벽마다 성전 사진을 하나씩 걸어 둔다. 4명의 아이들이 방 가운데에서 시작하게 하고 각자 다른 성전을 향해 가게 한다. (이것은 시합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여러분은 모든 어린이들이 성전에 도착하기를 원한다.) 각 어린이가 종이 한 장을 선택하고 그 원리를 읽게 한 후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발자국을 옮긴다. 각 어린이가 성전에 도달하면 사진 뒷면에서 노래 제목을 찾게 한다. 그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계속한다. 모든 노래를 다 부른 후, 어린이들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복돋워 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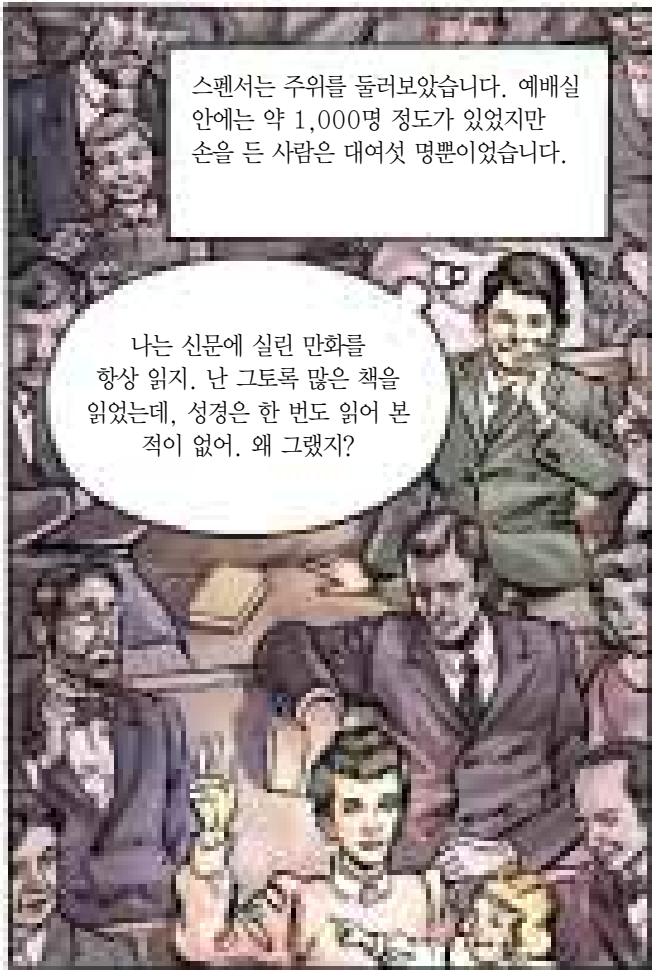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에서  
**성경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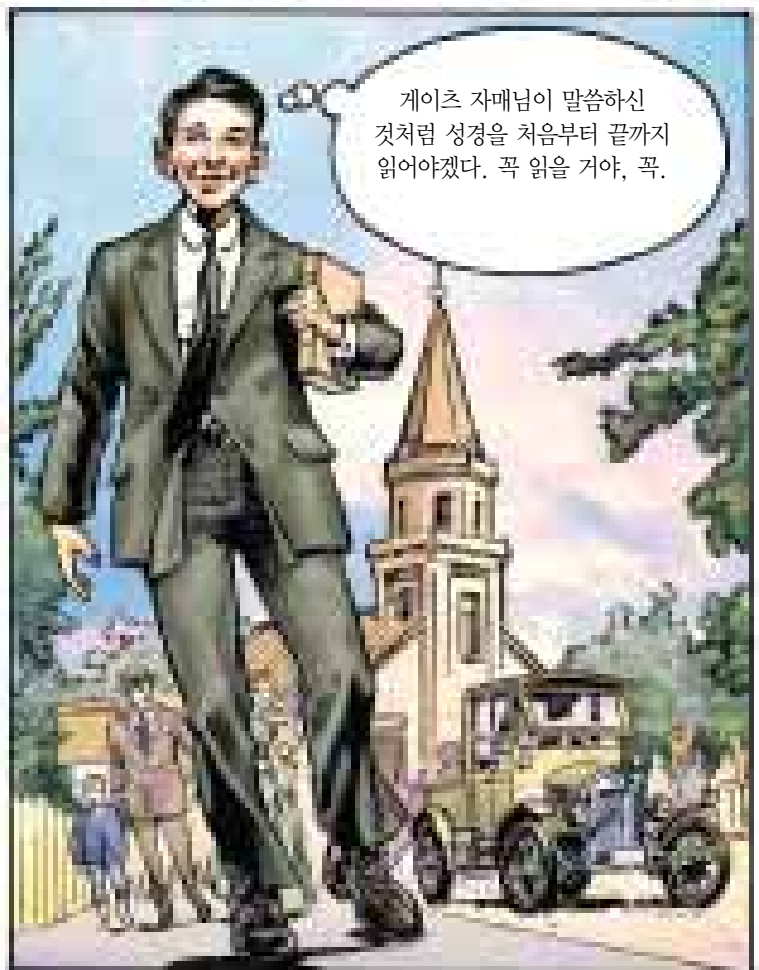
14살쯤 되었을 때, 스펜서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의 딸인 수잔 게이츠 자매가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신 분이 계신가요?



스펜서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예매실 안에는 약 1,000명 정도가 있었지만 손을 든 사람은 대여섯 명뿐이었습니다.

나는 신문에 실린 만화를 항상 읽지. 난 그토록 많은 책을 읽었는데, 성경은 한 번도 읽어 본 적이 없어. 왜 그랬지?



게이츠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겠다. 꼭 입을 거야, 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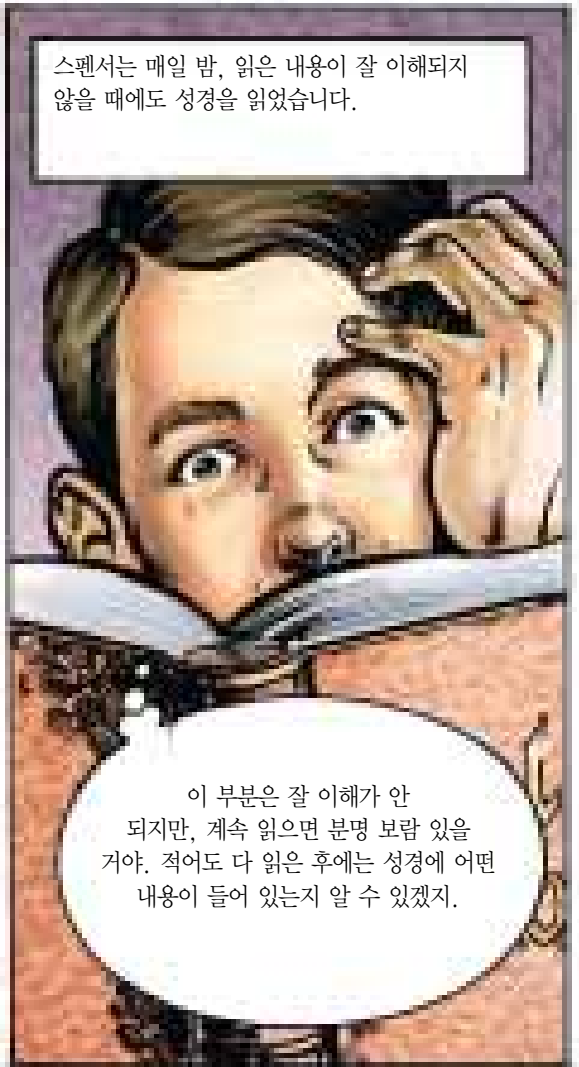


집에 돌아온 스펜서는 가족 성경을 찾아서 침실인 다락방으로 가서는 불을 켜고 창세기 1장을 펼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스펜서는 매일 밤, 읽은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읽으면 분명 보람 있을 거야. 적어도 다 읽은 후에는 성경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있겠지.

1년이 지난 후 스펜서는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스펜서는 성경에 대해 더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에드워드 엘 김블과 앤드류 이 김블 이세로부터, 스펜서 더블류 김블(1977년), 56~57쪽, 교회 회장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블(2005년), 59~60쪽.

# 우정 팔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잠언 17:17)

제니퍼 로즈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가** 족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나는 메건을 만났습니다. 메건은 우리와 같은 거리에서 살았고, 우리는 둘 다 크로포드 자매님의 초등학교 반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나는 메건이 농담을 하는 방식, 머리를 매만지는 방식, 다른 아이들에게 쉽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며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메건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저는 메건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메건에게 전화해서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메건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메건은 마침내 “케이틀린이 와 있는데”라고 말했습니다.

케이틀린도 우리 초등학교 반원이었습니다. 나는 메건이 내게도 오라고 말하기를 기다렸지만, 메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메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메건은 다른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초등학교에서 크로포드 자매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메건을 향해 미소 지었지만, 메건은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메건은 다른 쪽으로 돌아보면서 케이틀린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케이틀린은 갑자기 큰소리로 웃었습니다.

“조용히 합시다. 여러분” 하고 크로포드 자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메건과 케이틀린은 귓속말하는 것을 멈췄지만 웃으면서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크로포드 자매님은 내 쪽을 보시며 질문하셨습니다. “앤지, 좋은 친구란 뭐라고 생각해요?” 물으셨습니다.

“음, 친절하고 자기와 함께 노는 걸 좋아하고, 또 ...”

메건과 케이틀린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내 얼굴은 화끈거렸고, 나는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나를 비웃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크로포드 자매님은 그 아이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셨고, 그 후 내게 미소를 지으시며 “맞아요, 앤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은 교실을 둘러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애덤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줘요.”

크로포드 자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친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기를 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살아 계셨을 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나는 메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메건은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메건은 이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

공과가 끝날 때쯤, 크로포드 자매님은 작은 바구니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져오게 있어요.” 자매님은 바구니에 손을 넣어 작은 원으로 엮인 색색의 끈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정 팔찌예요. 여러분은 이걸 손목에 차고 볼 때마다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을 상기할 수 있어요.”

우정의 팔찌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 어쩌면 메건과 내 팔찌가 짝이 될 수도 있어.

반원들에게 바구니가 돌아가는 동안, 나는 메건을 향해 물었습니다. “무슨 색을 고를 거야?”

메건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글쎄, 아마 노란색.” “나도야.”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케이틀린은 파란색 팔찌를 골랐습니다. 그런 다음 메건에게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메건은 몇 개 남지 않은 팔찌들을 만지작거리던 후, 파란색을 집었습니다. 나는 메건을 쳐다보았습니다. 파란색? 메건은 바구니를 열린 나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바구니 안을

보았습니다. 바구니엔 노란색 팔찌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메건과 함께  
나는 우정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메건을 용서하도록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노란색 팔찌를 꺼냈습니다.  
메건과 케이틀린은 같은 파란색 팔찌를  
보면서 깔깔대며 팔짱을 끼었습니다.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눈을 찔렀습니다. 난 울지  
않으려고 이를 꼭 깨물었습니다. 난 그 애들  
앞에서 절대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

교회에서 집으로 오자마자 나는 엄마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울음을 터뜨리자 엄마는  
“무슨 일이니, 아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그날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엄마는 침대 위에서 내 곁에 앉아 날  
안아 주시며 “앤지, 그랬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건은 이제 나랑 친구로 지내고 싶지 않은  
걸까요?”라고 나는 물었습니다.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때로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왜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크로포드 자매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려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난  
메건에게 친절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한단다.” 하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크로포드 자매님 말씀에 동의해.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우리는  
친절하도록 노력해야 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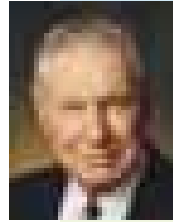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라고 나는 물었습니다.

나는 메건과 케이틀린이  
어떻게 웃었는지를 떠올렸고,  
다시 슬퍼했습니다.

엄마는 내 탁자 위에 놓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소녀상을 가리키시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여러분은 단지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마음의 햇빛이 비취질 수  
있게 하십시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여러분의 빛-얼굴을 위한 기”, 리야호나, 2006년 5월호, 113쪽.

할 때마다, 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단다.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 달라고  
간구하지.”

“효과가 있어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머리에 입맞춤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나아져.”

그날 밤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메건과 함께 나는 우정에 대해 감사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분께 내가 메건을 용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나는 눈을 꼭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메건과 제가 다시 친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그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메건이 우리 집 앞길을  
걸어 올라왔을 때 나는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네 타는 것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메건이 다가와서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  
주었습니다.

“네 거야.”라고 메건이 말했습니다. 나는 손을  
펴 보았습니다. 그것은 파란색 우정  
팔찌였습니다.

“같이 놀래?” 메건이 물었습니다. “케이틀린이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 공주 놀이를 할 건데,  
여왕은 누들이야.”

누들은 메건의 회색 줄무늬 고양이였습니다.  
나는 누들이 왕관을 쓴 모습을 상상하며  
웃었습니다. 나는 슬펐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도 가고 싶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나는 메건에게 미소를 지었고, 이번에는  
메건도 내게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



“정직은 최선의 길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1906~2004년),  
십이사도 정원회, “윤리와  
정직”, *Ensign*, 1987년  
11월호, 15쪽.



“너희는 선[정직]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후서 13:7)

## 정직한 모건

비키 에이치 버지  
실화에 근거함

어느 날 모건은 식탁 위로 장난감 트럭을 밀었습니다. 모건의 남동생 잭슨은 유아용 의자에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모건은 트럭을 너무 세게 밀었고, 트럭은 오렌지 주스가 든 컵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엄마! 엄마!” 모건이 소리쳤습니다. “잭슨이 오렌지 주스를 엷질렀어요!”

엄마는 오렌지 주스를 수건으로 닦아 내셨습니다. “모건, 정직해야 한단다.” 하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직이 뭔데요?” 하고 모건이 물었습니다.

“정직이란 오렌지 주스를 엷지른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게 말하는 거란다. 다른 사람이 엷질렀다고 말하지 않고 말아야.”

“알겠어요. 제가 오렌지 주스를 엷질렀어요.” 모건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직한 거죠?”

“그래” 하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구나, 모건. 네가 자랑스럽다.” ●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이 자라요.  
“나를 따르며, 너희가 본 바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라.” (니파이후서 31:12)

# 저는 얼마 전에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시다.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영의 영향을 느낄 수 있을까요?

★ 영의 음성은 작고 조용한 음성으로서, 들리기보다는 느껴지는 음성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마음에 떠오를 때 머리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영적인 음성입니다.

★ 기도는 계시를 얻는 데 필수적이므로, 기도가 없다면 휘장은 여러분에게 닫힌 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배우십시오. 자주 기도하십시오. 온 정신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 영의 음성은 부드러운 소리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속삭여 주기도 하고,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 영감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좀 더 쉽게 주어집니다.

★ 그 인도는 감명과 속삭임을 통해 생각과 느낌의 형태로 옵니다.

★ 우리가 영의 속삭임에 따른다면,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든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불의 갈라진 혀”,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9~10쪽, “개인적인 계시: 은사, 시험, 그리고 약속”, 리아호나, 1997년 6월호, 10~11쪽, “경외는 계시를 부르고”, Ensign, 1991년 11월호, 21쪽, “세상을 바꾼 계시”, Ensign, 1989년 11월호, 14쪽.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이 이 주제에 대한 생각을 나눔.



# 선교사 친구들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아가 ... 자기의 복음을 선포하라” (모세서 8:19)



칠십인 정원회의 게리 제이 콜먼 장로와의 인터뷰에서; 힐러리 엠 헨드릭스

**저**는 가톨릭 교회에 가족과 함께 충실하게 참여하면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교회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석했고, 집에서 매일 밤 가족 기도를 했습니다. 소년 시절 내내 교회 친구들은 제가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제가 9살 때, 저는 복사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복사는 일요일 미사라고 하는 예배 모임 동안 신부님을 돕습니다. 제 형들과 여러 친구들은 저와 함께 봉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제단 위의 촛불을 켜고, 신부님의 예복을 조심스럽게 펼치고, 제단 옆에 성경을 놓았습니다. 예배 모임 동안 우리는 교우들에게 성찬과 비슷한 빵을 건네는 것을 도왔습니다.

복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미사의 성구들을 라틴어로 외웠습니다. 우리는 매주 종교 수업도 들었습니다. 여름이 오면 제 친구들과 형들, 누나들, 그리고 저는 집에서 32킬로미터 떨어진 성경 교실에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여름 동안 밀 농장에서 일하느라 바쁘셨습니다. 그 몇 주 동안 부모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셨을 텐데, 성경 교실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선생님이었던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신앙에 감명 받았고 하나님께서 제가 하기 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많은 학교 친구들은 술과 담배 등 제가 옳지 않다고 배운 것을 하기를 택했습니다. 저는 농장에서 일하고 운동을 하고 학교에서 연극을 하며 교회 활동에 참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저처럼 옳은 일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느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을 때, 좋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제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작은 건물의 한 와드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를 잘 기억합니다. 제가 차에서 내렸을 때, 대학 친구들은 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반갑다!”하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와서 정말 기뻐!” 제 생애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악수해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형제님이 여기 오셔서 정말 기뻐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낯선 사람이었던 제게 보여 준 그 와드의 사랑에 저는 여전히 감동을 느낍니다.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사 때 사제를 돕는 소년(복사)으로서 제가 경험했던 예배 의식은 매우 체계적이었으며 극히 조용했습니다. 후기 성도들의 예배 의식은 매우 달랐습니다. 모임 전에는 서로 많은 인사를 나누었고, 생각해 볼 많은 개념과 경험할 많은



새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저는 많은 의문점을 가졌고, 의구심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교회 회원들의 온정과 우정이 저를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 제가 복음에 대해 공부할 때 성신의 증거는 제가 침례 받기를 원하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만 있는 회복된 복음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찾도록 도와준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로서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교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자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하면서 교회의 회원이 아니거나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으십시오. 그들을 초등학교에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미소를 지으십시오. 새로 온 사람들 곁에 앉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 묻고, 항상 친절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나누는 사랑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하게 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 알게 해 줄 것입니다. ●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이 환영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십시오. 미소 짓고 친절하게 대하기를 기억하십시오.*



# 교장실에서의 정의반 반지

레베카 에프

**제**가 8살이 되기 전 어느 날 학교에서 우리의 손과 손톱이 깨끗한지 검사하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제 정의반 반지를 보셨습니다. 저희 줄에 있는 나머지 아이들을 검사한 후 교장 선생님은 다시 내게로 오셔서 “레베카, 교장실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담임 선생님께 “잠깐 레베카를 데리고 가도 될까요?”라고 물으셨습니다.

교장실에서 교장 선생님은 제게

정의반 반지의 의미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선택하라.”는 의미라고 대답했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도록 가르치며, 기도와 경전 읽는 것도 가르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물으셨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선생님은 교회에 대해 물으셨고, 저는 조셉 스미스가 기도하기 위해 숲속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본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여덟 살이 되면 침례를 받고 부모님과 인봉되기 위해 성전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은 네가 수학

시간에 들어가야 할 테니 나중에 좀 더 말해 주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저는 교장 선생님께 제 간증을 적은 물몬경을 한 권 드렸습니다.

제게는 자라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레베카 에프, 12세, 과테말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2)



## 선교사를 위한 건강 관리

도널드 비 도티, 의학박사,  
선교사부 건강 서비스 위원장

**전** 임 선교사로 나가기 적어도 2년 전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35년간 심혈관 및 흉부 외과의로 일하면서 나는 수천 번의 심장 수술을 했다. 심장 수술 후, 환자들은 다시 수술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종 묻는다. 환자들이 묻지 않아도 나는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체중, 유산소 운동, 적절한 휴식,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주곤 한다. 나의 충고에 따른 사람들은 보통 수년간 큰 탈없이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다. 생활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수술 메스와 만나야만 했다. -보통은 한참 후가 아니라 일찍 그렇게 해야 했다.

### 지금 시작함

예방은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필수적이다. 오늘날 약 3 퍼센트의 선교사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선교 사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100명 중 3명의 선교사를 잃는 게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족에게는 중대한 일이다.

나는 일년 넘게, 선교사들에게 생기는 건강 문제를 관찰하는 부름에서 봉사해 왔다. 내가 부름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이러한 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행히 선교사들이 직면하는 건강 문제 중 다수



신체적 준비를 신중히 함으로써 예비 선교사들은 전임 봉사를 못하게 되거나 봉사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을 피하게 될 것이다.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 관리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는 적절히 관리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선교사의 부름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 사업을 하러 가기 훨씬 전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갈 것이라 예상되는 시점에서 적어도 2년 전부터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준비를 마감까지 또는 선교사 부름을 받은 후까지

미루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어쩌면 선교 사업을 미루어야 할지도 모른다.

신체 건강 관리는 보통 의사나 치과 의사와의 정기적인 진찰을 포함한다. 어떤 경우,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 건강 전문의의 진찰이 요구될 수도 있다.

#### 신체 건강 관리

규칙적인 (매일) 운동. 선교사는 하루 평균 10킬로미터를 걷거나 19킬로미터를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에서 교실이나 직장까지밖에 걷지 않는 예비 선교사는 선교 지역에 가서 발이 아

프거나 물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자전거가 기본 교통 수단인데도 자전거 타는데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안장 때문에 생긴 상처로 고생할 것이다. 건강하지 못한 선교사는 선교 사업으로 지치게 될 것이며, 지친 선교사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선교사보다 좌절하거나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

예비 선교사는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 한 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선교사 생활의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다. 전자 오락이나 전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이 활동의 대부분인 사람들은 실제로 운동을 즐기

위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개월은 걸린다.

적절한 수면. 수면량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성인은 보통 매일 7~8시간은 자야 한다. 이상적으로 청년은 10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들어 6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야 한다. 새벽 2~3시까지 자지 않거나 아침 10시까지 자면, 보통 피곤하다고 느끼게 되거나 정오까지 자고 싶어진다. 벼락치기 시험공부를 하려고 밤을 새거나, 밤 늦게까지 전자 오락을 하거나 심야 근무를 하면 신체 리듬이 바뀌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선교사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선교사는 매일 밤 10시 30분에 자고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난다. 예비 선교사가 부름을 받기 전에 미리 이와 비슷한 일과 대로 생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건강한 식습관. 젊은 사람들은 당분이나 지방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살코기, 유산균 발효유, 채소, 과일같이 단백질과 섬유질로 구성된 식사를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하루에 350ml 이상의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것은 해롭다.

선교사부는 선교사들이 신체 용적 지수를 37 이하로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사실 이 수치는 비만과 병적인 비만의 경계선에 있다. 예비 선교사들은 자신의 체중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것으로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정상 체중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음식 준비 기술. 부모들은 자녀들이 간단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다. 나는 ‘간단’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는 선교사들이 전기 콘로나 버너가 하나 달린 가스 레인으로 조리하거나 오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예비 선교사들은 요리의 기본이나 음식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선교사 숙소에는 보통 자동 식기 세척기가 없으므로 식사 후 뜨거운 물과 세제로 설거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위생.** 개인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는 습관은 선교사로 성공하기 위해선 아주 중요하다. 호감이 가는 첫 인상은 오래 남게 된다. 손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선교사들은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전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피부 문제.** 십대들에게 여드름은 흔한 문제이다. 심한 여드름 문제가 있는 선교사는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의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일부 여드름 치료제는 거품 관찰이 필요하며 선교 지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치아 건강.** 예방은 치아 건강의 핵심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이를 닦고, 매일 치실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치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선교사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치과 치료를 끝내어야 한다. 보통 2년 이상 걸리는 치열교정은 선교사 훈련원에 도착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만성적 건강 문제.** 두통은 일반적이고 어려운 건강 문제이며 선교 사업 기간 동안 악화되거나 선교 지역에서 진단하거나 치료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때때로 위나 장 문제 역시 선교 사업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심장 문제나 천식 같은 호흡기 문제는 선교 사업 시작 전에 철저히 진단되어야 한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많은 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선교사 기간 동안 계속하여 치료한다면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부상에 의한 뼈나 관절 문제는 수술을 필요로 한다. 관절경 검사를 포함한 정형외과 관련 치료는 보통 긴 재활 기간을 수반한다. 예비 선교사는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4~6개월) 적절한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무릎 수술을 받은지 2주 만에 목발을 짚고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는 젊은 남성과 여성은 선교 지역에서 걸어야 할 거리를 걷지 못할 수도 있다.

**예방 접종.**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적절한 나이에 가능한 한 모든 정기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충분한 시간 전에,

봉사하게 될 나라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예방 접종은 접종에 따른 아주 작은 위험 부담보다 훨씬 큰 이점이 있다. 예방 접종은 개인에 따라 병에 저항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면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차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정신 건강 관리

모든 사람이 슬픔이나 걱정이나 낙담을 경험한다. 이것은 특별히 상실과 비탄의 기간에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일상 생활을 침해하는 정서적인 어려움은 선교 사업 시작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해결하지 못한 죄들은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것들은 예비 선교사가 부름을 받기 전 감독과 만날 때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해결되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도 치료가 필요한 다른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감정 장애.** 우울증, 슬픔, 걱정, 공포를 만성적으로 혹은 계속하여 느끼는 사람은 의사나 정신 건강 상담원을 통해 진찰을 받아야 한다. 특히 그들이 화가 났을 때의 감정 기록 또한 진찰이 필요하다. 상담이나 약물을 통한 치료는 감정 장애를 감소시키거나 완화시켜 선교 사업을 가능하게 한다.

**비정상적 사고 패턴.** 지나친 걱정이나 죄책감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완벽해지려는 절실한 욕구를 가진 완벽주의 역시 장애에 가까운 정신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다. 고통스런 생각을 계속한다거나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자주 손을 씻는 행위는 강박성 사고 장애의 징조이다. 의사나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런 류의 비정상적인 사



고 패턴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학습 장애.** 선교 사업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능력은 필수이므로 주의력 결핍증과(ADD) 같은 학습 장애 문제들은 선교사가 성공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학습 장애에 대한 진찰과 치료를 통해 학습 능력이 현저히 개선될 수도 있다. 일부 학습 장애는 선교사 생활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들과 예비 선교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독 및 전문가와 함께 전임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섭식 장애.** 사람들은 자기 위안이나 낙담 및 걱정을 음식을 먹음으로써 해소하려 하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는 비만을 부르는 중독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말라야 한다는 혹은 표준 이하의 체중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나 식욕 항진증을 부를 수도 있다. 이 두 증상 모두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는 선교 사업 기간 동안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은 치료가 매우 어려우므로 선교 사업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향수병.** 선교사 기간 동안 느끼는 가벼운 향수병은 일반적이지만, 부모와 형제 자매를 떠난다는 사실이 극심한 불안을 야기하여 수면이나 섭식하는 능력을 방해하기도 한다.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선교사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극심한 체중 감소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 선교사들은 집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필요가 있다. 장기간의 캠핑 여행이나 학교 기숙사에서 살아봄으로써 떨어져 지낼 때 느낄 수 있는 심각한 불안에 대한 경향을 알 수 있다. 집을 떠났

을 때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의사나 정신 건강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사교술.** 선교 사업에는 여러 연령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포함된다. 예비 선교사들은 연장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껴야 한다. 그들은 공손하고 예의 바르며, 올바른 식사 예법을 지키고, 다른 사회의 예절을 준수하기 위해 연습해야 한다. 선교사들은 또한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해야 하므로 예비 선교사들은 그들의 가족과 친구 이외의 사람들과 편하게 접촉을 시도하고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또한 세상의 여러 문화적 차이점을 잘 알아야 한다.

**직업.** 선교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일)이다. 선교 사업에는 쉬운 것이 없으므로 젊은 사람들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정규 직장은 정시에 출근하고 불필요하게 결근을 하지 않으며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맡은 일이 끝나면 할 일을 찾아내고 퇴근을 일찍 하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 직업은 또한 젊은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능한 지역에서는, 예비 선교사는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내는 헌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선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최대한 자신이 부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신이 선교사 비용을 대도록 함으로써 예비 선교사들은 제한된 선교사 할당금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 **다른 선교 사업의 기회**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 선교사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다. 예비 선교사들과 부모들은 선교사 지원서에 건강문제나 약물 치료에 관해 솔직하게 기재해야 한다.

불행히도, 일부 건강 문제는 전임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에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봉사하기를 원하는 회원 중에는 합당하지만 선교 사업을 위한 육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님이 이러한 분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하고 전임 선교 사업 봉사에서 그들을 명예롭게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sup>2</sup> 이러한 경우 봉사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큰 축복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은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성숙하며 발전해 갈 수 있다. 부모, 감독, 스테이크 회장은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함으로써 도울 수 있다.

봉사 선교 사업 기회는 교회 웹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Other Resources”를 선택 후 “Mission and Service Opportunities”를 선택한다. 만성적인 신체적 장애에 대처하기 위해 고등 교육을 계속하거나 기술 교육을 받는 것 또한 훌륭한 대안이다.

#### **돕기 위해 이곳에 있음**

예비 선교사들은 지원서를 내기 전에 자신을 잘 준비하는 동안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고 자신의 신체적 힘을 증진시켜서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생활을 이겨내도록 정신적, 정서적으로 준비될 수 있다. 그러면 심각한 건강의 문제없이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불행히도 몇몇 선교사들은 선교 사업 중 예상치 않게 아프거나 다치게 된다. 전세계에 50명 이상의 건강 관리 전문가가 전임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200명이 교회 본부에서 자원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다. 이들 모두 선교사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건강 관리 전문가들의 작은 무리는 그야말로 아프거나 다친 어느 선교사라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선교사들이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는 동안 건강하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다. ■

주

1. "선교사가 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4쪽.
2. 제일회장단 서신, 2004년 1월 30일.

(1856~1945)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그 찬송가를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전에서 갖는 주례 모임에서 어떤 달에는 한 달에 두 번도 불렀으며, 우드럽 형제님이 그 찬송가를 부르자고 하지 않고 한 달을 지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이 사업을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사업의 촉진을 위해 그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해 일하셨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2004], xv)

사람들은 우드럽 회장에 대해 일지를 열심히 기록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는 그의 성인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일지를 기록했으며, "운명하기 이틀 전인 1898년 8월 31일에 마지막 일지를 기록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125쪽)

한 모임에서 그는 공식적인 교회 기록에는 물론, 일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쳤다. "넷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 같은 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험을 두 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모임에서 있었던 일은 영원히 닫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었던 시간을 우리는 결코 다시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임에서 한 일과, 가르침과, 권고를 기록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127쪽)

그는 어린이들에게 일찍부터 일지 적기를 시작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젊은 친구 여러분이 이 일을 시작하여 계속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황금보다 더 가치

## 교회, 윌포드 우드럽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다

케이트 맥닐, 교회 잡지 기자

**20**07년 3월 1일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4대 회장인 윌포드 우드럽이 태어난 지 200년이 되는 날이다.

1807년 3월 1일에 태어나 미국 코네티컷 주 파밍턴에서 자란 윌포드 우드럽은 제분소 직공이었다. 그는 1833년 교회에 가입했으며 1839년 사도로 성임되기 전 두 번의 선교 사업을 했다.

십이사도 정월회의 일원으로서 그는 추가로 네 번의 선교 사업을 완수하였으며, 유타 주 세인트조지 성전을 관리하였으며 교회 역사 편찬가로 6년간 봉사했다.

그는 1889년 4월 7일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되었고 유타 주 맨타이 성전을 헌납했으며 오래 기다려온 솔트레이크 성전을 헌납하였다. 또한 Genealogical Society of Utah의 조직을 감독하였으며 역사 기록 작성의 가치에 대해 재강조했다.

우드럽 회장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함께 시온 캠프에 참가한 충실한 개척자



윌포드 우드럽 회장

였다. 1847년 7월 24일, 40세의 나이로 솔트레이크 계곡에 당도하였으며 브리검 영이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선언했던 당시, 브리검 영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 이루시는 일"(찬송가 178장)은 우드럽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였다. "윌포드 우드럽이 교회 회장이었을 때 사도로 봉사한 히버 제이 그랜트





우드럽 회장은 40년에 걸친 건축 기간 후에, 1893년, 슬트레이크 성전을 헌납했다.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132쪽)

깊은 숙고와 기도 끝에, 우드럽 회장은 후기 성도들은 복수 결혼의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계시를 받았다. 1890년 그는 공식선언-1을 작성했으며, 교회가 복수 결혼의 시행을 중지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 계시를 공표하는 데 있어 주님을 대신한 것 외에도 우드럽 회장은 선교 사업과 성전 사업을 강조하는 유산을 남겼다.

우드럽 회장은 91세의 나이로 1898년 9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운명했다.

2006년 전세계의 회원들은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교재를 통해 이 선지자의 간증에 대해 배웠다. 교재에는 우드럽 회장의 일생과 성역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드럽 회장은 현대의 선지자를 보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젊은 시절 나는 밤낮으로 선지자를 볼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습

니다. 나는 선지자를 보거나 성경에서 내가 읽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천 킬로미터라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교회에도 속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xix~xx쪽)

우드럽 회장은 현대의 계시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시 없이는 24시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47쪽)

그는 또한 성신을 통한 개인적인 계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여러분은 천사들의 성역을 갖고 있고, 기적을 보[지만] ... 저는 성신의 은사야말로 사람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49쪽)

우드럽 회장은 종종 성도들에게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주님께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후기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성전에 가는 것은 산 자만을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도 구속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xxix쪽) 그는 특유한 근면함으로 성전 사업에 대한 모범을 보이면서, 수많은 그의 조상들을 위한 사업을 행했다.

그의 시대의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드럽 회장은 전세계에 성전이 세워질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

이러한 보고가 나온 시각, 아우나 회장은 진원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에 위치한 코할라 와드 집회소의 벽에 금이 갔으며 조명 기구에 손상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스테이크 내 건물들의 구조적 안전에 대한 진단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던 케에이 와드 집회소에서는 그곳의 위성 수신용 안테나가 지지대에서 떨어져 부지에 있는 선교사 숙소의 모퉁이에 손상을 주었으며 또한 집회소 내 천정 부착물들이 떨어졌다.

오아후 섬에는 정전 외에는 하와이 라이에 성전에 보고된 피해는 없으며, BYU-하와이나 인근의 폴리네시안 문화 센터에서도 보고된 피해는 없었다. ■

2006년 10월 21일자 Church News에서 발췌

## 하와이 제도를 강타한 지진 이후 단합한 회원들

줄리 독스태더 힉스, Church News 기자

**최**초 측정에 따르면 일요일인 2006년 10월 15일 이른 아침, 하와이 제도에 있었던 진도 6.7의 지진은 하와이 코나 성전 및 몇몇 집회소에 약간의 피해를 입혔다.

현지시간으로 오전 7시 7분에 발생한 지진의 진원지는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카일루아 코나 북북서 쪽으로 16km 지점이었으며, 하와이 제도 모든 섬에서 진동이 감지되었고, 그로 인해 오아후 섬에서는 정전이 있었다. 빅 아일랜드에서는 수 시간 동안 전기가 나갔으며 도로, 다리 및 많은 구조물들이 손상을 입었다.

카일루아 코나 섬에 위치한 하와이 코나 성전에서는 상들리에에 손상이 갔고 다른 곳에도 약간의 피해가 있었지만 지역 칠십인이자 BYU-하와이 총장인 에릭 비 섬웨이 장로에 따르면 그 이틀 후, 참

여자들을 위해 성전 문을 열었다고 한다.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나 선교사들은 없었지만 빅 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집회소에 약간의 피해가 있었다고 섬웨이 장로는 덧붙였다.

섬웨이 장로는 지진 후 짧은 시간 내에 비상 사태 및 재난 계획이 가동되었다고 언급하며 “교회 회원들이 같이 단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와이 코나 스테이크의 앨리 케이 아우나 이세 회장은 진도 6.5 이상의 지진에 대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스테이크의 비상 계획에 따라 신권 지도자와 회원들이 보인 반응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스테이크 회원들이 즉시 “연락이 닿았으며 안전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 기사 요청

**리**아호나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구주에 대한 간증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쳤는지 나누도록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속죄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을 500자 이하로 작성한 후 “Testimony”라고 표시하여 2007년 4월 16일까지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나 [Liahona Editorial, 50 E. North Temple St., Roo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mailto: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 (또는 지부 및 지방부)를 기재하고, 사진(사진 게재를 허락하는 서면 승인서 포함)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7년 3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2007년 3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4쪽과 5쪽에 있는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를 참조한다.

1. 사전 한 권, 성경 몇 권, 그리고 찬송가 한 권을 가져온다. 어린이들에게 경전을 연구하기 위해 이 책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경전을 올바르게 연구할 때 그것은 단지 읽기만 하는 것이 이상이라고 설명한다. 어린이들에게 야고보서 1:5을 찾아보라고 한다. 초등학교를 몇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한 가지 과제를 준다. 한 그룹에게 사전을 주고 “후히” 또는 “꾸짚지”와 같은 어려운 단어들의 뜻을 찾아보라고 한다. 또 다른 그룹에게는 조셉 스미스 역사 1:11을 찾아서 야고보서 1장 15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내게 한다. 한 그룹은 찬송가에 있는 색인을 사용하여 야고보서 1장 5절과 관련된 찬송가를 찾게 한다. 이 중요한 구절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그룹들이 알게 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조셉 스미스는 이 구절을 읽었고 이 구절은 그에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경전을 읽음으로써 응답을 받았던 때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기도와 경전 공부로 통해 오는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

2. 달력을 보여 주고, 어린이들에게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묻는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안식일이 창세기 2:2~3에 나와 있듯이 일곱 번째 날이었다고 말한다. 나이 많은 어린이들 중 두 명이 안식일에 대해 더 설명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전 주에 한 어린이에게는 “안식일의 역사”에 대한 요약, 또 다른 어린이에게는 복음 원리 주일학교 교재 제24장에 나오는 “주님의 날”에 대한 요약 준비하도록 부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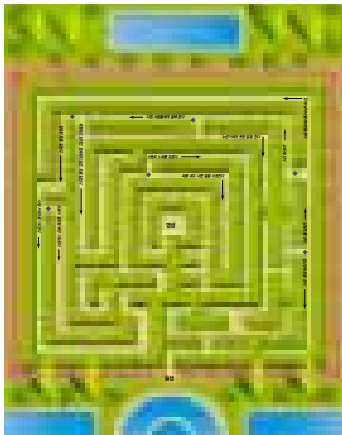
어린이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의 목록을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다. 복음 원리 제24장에 나오는 목록은 훌륭한 자원이 된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일보다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춘다.

안식일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전시한다. 매주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복음을 공부하며, 성찬을 취하고 일을 쉬는 특별한 날이 있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과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한다. 그분의 신성함에 대해 간증한다.

노래 발표: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린이 노래책, 40쪽; 리아호나, 1990년 4월호, 54~55쪽) 노래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여 준다. (가능하다면, 그림을 확대 복사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들에게 어린 여자아이가 왜 울고 있을지 상상해 보라고 한다. 어린 소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는 누구일지 물어 본다. 그 소년은

여자아이의 오빠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주 예수를 닮으려고”를 부른다. 예수님은 그림에 나오는 오빠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가르치시며 사랑하신다고 말한다.

노래를 하는 동안 어린이들에게 노래 첫 번째 줄의 리듬에 따라 손가락 박수(한 손의 손가락 두개씩 반대편 손바닥을 친다)를 치게 해서 가사를 가르친다. 두 번째 줄의 가사도 비슷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어린이들이 첫 번째 줄 가사를 여러분과 함께 여러 차례 불러 보게 한다. 두 번째 부분을 부른다. 어린이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찾아보고 경전 구절과 후렴의 가사를 비교해 보라고 한다. 어린이들이 경전을 보는 동안 후렴 구를 부른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후렴을 몇 번 부른 후, 가사에서 후렴으로 바로 들어가는 연습을 한다. 어린이들에게 가족, 친구,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림에 나오는 소년처럼 되라고 격려한다. 어린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때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된다. 구주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노래 가사: 주 예수 닮으려고, 주의 사랑 받으려고, 주의 영광 받으려고, 주의 이름 영광 받으려고, 주의 약속 지키려고, 주의 말씀 지키려고, 주의 명령 지키려고, 주의 사랑 받으려고, 주의 사랑 받으려고, 또 노력하라.

노래가사: 주 예수 닮으려고, 주의 사랑 받으려고, 주의 영광 받으려고, 주의 이름 영광 받으려고, 주의 약속 지키려고, 주의 말씀 지키려고, 주의 명령 지키려고, 주의 사랑 받으려고, 주의 사랑 받으려고, 또 노력하라.

##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이번 달 리아호나는 선교 사업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리아호나 표지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표제와 함께 두 선교사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안에는 청소년이 봉사할 준비를 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엠 리셀 벨라드 장로님과 그의 인터뷰 내용을 비롯하여 우리 삶에서 영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 및 다른 분들의 권고와 선교 사업의 축복에 대한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메시지가 실려 있습니다.



왼쪽부터 고원웅 장로,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가즈히코 아미스타 장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자녀들에게 간증하십시오.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들에게 “자신을 잊고 사업에 전념”할 때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희망이고 꿈이며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이웃을 위해 이 위대한 봉사를 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딸들에게는 그들이 합당하며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선교 사업이 합당한 성전 결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지지할 것임을 알려 주십시오. 벨라드 장로는 이번 호 리아호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의 선교부이든 더 많은 자매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선교부 회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힝클리 회장님이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는 그의 손에 다음과 같은 짧은 성구가 적힌 쪽지를 쥐어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마가복음5:36) 이후 한 힘든 시기에 그의 아버지는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짧은 편지 한 통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든, 최근에 보낸 네 편지는 잘 받아보았다. 네게 할 수 있는 제안은 이 한가지 뿐이구나. 네 자신을 잊고 사업에 전념하거라.” 그날 아침 편지가 오기 전, 힝클리 장로와 그의 동반자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마가복음 8:35)

젊은이 여러분,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십시오. 바로 오늘이 다른 일을 미루고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결심의 날”이 되도록 하십시오. 젊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 사업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린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봉사해야 함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젊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을 합당하게 지키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그 후에 충실하게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선교 사업 경험을 돌이켜보고 힝클리 회장님과 그 밖의 수많은 분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든, 제 삶에서 일어난 모든 좋은 일은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제 삶의 일부를 바치겠다는 결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고든은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봉사하면서 제 자신을 잊고 자신을 바치겠다고 성약했습니다. 1933년 7월 그날은 제 결심의 날이었습니다.(Friend, 2006년 7월호) 그가 자신을 잊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자, 젊은 힝클리 장로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내 삶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새로운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나라의 아름다움이 보였고 그곳 사람들의 위대함이 보였습니다. ... 그 이후 세계 일어난 모든 좋은 일은 바로 그 작은 집에서 했던 결심으로 인해 온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하십시오. 와서 깨끗하게 되십시오. 와서 행복하게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값이 있을”(교리와 성약 15:6)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일을 와서 경험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큰 신앙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이 책임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축복임을 간증드립니다. ■

여러분의 지역 회장단으로서 우리들은 부모와 젊은이들에게 이번 호 리아호나를 함께 읽고 가족으로서 그에 대해 토론하도록 권고 드립니다. 부모님들은 힝클리 회장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장로 내한 특별 모임

# “주님의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2007년 1월 넷째 주,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한국을 찾았다. 단 며칠 동안이었지만 넬슨 장로가 대전과 서울 지역을 오가며 전한 사랑과 감동의 메시지는 성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넬슨 장로의 발걸음을 되짚어 본다.

## 대전 지역 특별 모임

1월 25일, 대전 우송 예술회관에 모인 성도들에게 넬슨 장로는 더 훌륭한 가정으로 만들 5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가족사진을 찍어서 걸어 놓고, 성전 그림을 걸어 두고,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고, 리아호나를 구독하고, 가정에 교회 음악이 있게 하라는 것이 넬슨 장로가 전한 방법들.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각지에서 구름처럼 모여든 성도들은 넬슨 장로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모임은 평일 저녁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도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인 700여 명의 성도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 서울 영동 스테이크 대회

넬슨 장로는 1월 27일과 28일에 열렸던 서울 영동 스테이크 대회에 감리자로 참석했다. 송파 구민 회관에서 진행 된 28일 일요 총회에서 넬슨 장로는 문자 그대로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해 가르쳤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경전을 읽고 항상 구절을 인용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신권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도가 전하는 ‘기본’에 많은 회원들은 영적으로 감화되었다. 넬슨 장로는 또한 “회원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시작하는 선교 사업이야말로 잠재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당부했다. 사랑과 감사를 함께 전하며 말씀을 마친 넬슨 장로는 곧 다음 모임 장소를 향해 바쁜 걸음을 옮겼다.

## 서울 지역 특별 모임

1월 28일 저녁 6시, 넬슨 장로와 함께 한 서울 지역 특별 모임의 장소는 세종 대학교 대양홀이었다. 삼천 석 규모를 자랑하는 넓은 공간에 하나 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오후 4시 무렵. 모임 시작이 가까워지자 대양홀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 들었다. 삼천 석이 가득 찬 것이다. 주님의 사도를 보기 위한 성도들의 열의는 그만큼 크고도 강했다. “이 곳을 가득 채운 성도들에게 감사 한다.”는 말로 말씀을 시작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고원용 장로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걸음의 폭을 넓혀라.”는 말을 인용하며 “더 넓고 많은 걸음을 걸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오른 넬슨 장로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에게 가르칠 내용을 전하겠다.”고 말하며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칠 내용들에 대해 말씀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속죄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경전을 읽어주고, 십일조의 축복에 대해 가르치라는 것 외에 여러 가르침을 전한 넬슨 장로는 한국의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했다. 넬슨 장로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에 대해 보상해 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며 “주님의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는 감동적인 선언으로 말씀을 마쳤다. 한편 이날 모임에 참석한 삼천 명 중에는 11명의 특별한 성도들이 있었다. 농아 지부에서 참석한 11명의 회원들이 바로 그들. 한성미 자매와 이혜택 형제의 수화 통역으로 넬슨 장로의 말씀을 들은 정종태 형제(중앙 농아 지부)는 “말씀을 듣고 넬슨 장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좀 더 경전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성전 방문을 가야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감동을 전했다. ■

오경권 기자, 오순임 기자, 이진희 기자





# 바늘구멍만큼의 빛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을 몇 달 앞 둔 39살의 어느 날,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의 윤애란 자매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다. '공부를 하자! 지금까지는 신권 지도자의 아내로서 교회 안에서만 봉사했지만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이었지만 윤애란 자매는 실행해 옮겼다. 가족 치료 대학원에 입학했고 상담원 공부도 했다. 가족 치료사, 사회 복지사, 미술 치료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의사소통 강사로도 일했다. 그 모든 것을 39살 이후에 이뤘다. 윤 자매의 새로운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그것도 가족 치료나 상담원으로서의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윤애란 자매는 “인간관계에서 빈틈”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녀들을 키우고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윤 자매는 공부를 하기 전에도 이미 다른 이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윤 자매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비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더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느꼈고,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은 곧 공부로 이어졌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윤애란 자매는 모든 이론들이 교회의 가르침 그대로였다고 회상한다. “대학원이나 상담원 공부를 하

‘가정폭력상담소’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이하 ‘이민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이민자센터’는 전국 21개 ‘이민자센터’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해 12월 5일 여성가족부 장관 상을 받았다.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윤 자매에게 먼 타국에 와서 힘들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외국 여성들을 돕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윤 자매와 ‘이민자센터’는 결혼 이민자들의 필요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돕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프로그램, 요리 교실, 무용 치료, 문화 체험, 그리고 컴퓨터 교실 등이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활동이다. 윤 자매는 모든 활동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두고 진행한다. 그녀가 다른 이들을 위해 ‘돈 한 푼 생기지 않는 일’에 봉사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교회에서 배운 그 가치를 이 땅의 모든 소외 계층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윤 자매의 소망이다.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상처 입는 결혼 이민자들에게 윤애란 자매가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가치가 심히 크다.”는 주님의 말씀. 윤애란 자매는 교회에서 배운 여러 가치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할 것을 성도들에게 권유한다. “하나님께 배운 것들을 사람들을 위해 나누면 좋지 않습니까?”

윤 자매는 손을 들어 허공에 그림을 그려가며 말한다. “방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면 쉽게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늘구멍처럼 작은 구멍이라도 뚫어서 빛을 들이면 어느새 어둠은 물러갑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늘구멍만큼의 작은 빛,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이 땅의 성도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서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는 그때를 상상해 본다. 윤애란 자매의 눈부신 미소처럼 환하고 밝을 그 세상을 소망해 본다. ■

결혼 이민자인 알리시아씨의 출산을 축하하는 윤애란 자매



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교회의 가르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나 상담을 하면서 세미나리 교재나 공과 교재, 그리고 가정의 밤이나 상호부조회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합니다.” 윤 자매가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한 일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돕는 일. 그녀는 단순히 여성들을 돕는 일에 그치지 않고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을 상담하고 교화시키는 일도 했다. 그때 사용했던 것이 교회 비디오인 ‘자니링고.’ 그 비디오를 보여 주며 인간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곤 했다.

윤애란 자매는 현재 ‘아산우리가족상담센터’의 대표로 봉사하고 있다. 이름 그대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상담해 주는 곳이다. 더불어 윤 자매는



# “네가 접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

앨마서 37장 35절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는 물론 경이다. 과목은 매년 다르지만 경전을 펼쳐 들고 밤을 밝히는 청소년들의 열의는 늘 변함이 없다. 전국 각지에서 열린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의 열띤 현장으로 초대한다.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서울 서 종교 교육원 학생들

사진: 이태진

## 광주 종교 교육원 - 버저를 울려라!

광주 종교 교육원의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전으로 치러진다. 그만큼 긴장감도 더하고 퀴즈 대회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2007년 1월 27일 토요일,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렸던 광주 종교 교육원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는 열띤 응원과 뜨거운 경쟁의 장이었다.

개인전으로 진행되는 광주 종교 교육원의 퀴즈 대회는 예선과 본선이 있다는 것이 특징. 예선 시험 점수와 출석 점수를 합산해서 높은 순서대로 12명의 청소년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이 시작되면 광주 종교 교육원 퀴즈 대회의 명물이라 할 수 있는 버저(Buzzer)가 등장한다. 성구 쓰기 등의 문제와 달리 단답형의 질문 등은 버저를 먼저 누른 청소년이 대답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경전 지식은 물론이고 순발력까지 요하는 이 순서에 많은 청소년들이 손에 땀을 진다.

동점자가 3명이나 있어 14명이 본선에 진출한 올해 퀴즈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경전을 손에서 떼지 않고 합숙을 하며 서로를 격려했던 시간들이 버저를 누르는 손에서, 그리고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 결과 정다운나라 형제(광주 스테이크 송정 와드)와 조은비 자매(광주 스테이크 송정 와드) 그리고 이한나 자매(광주 스테이크 백운 와드)가 나란히 1, 2, 3등을 나눠가졌다. 조용현 회장은 “주님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때를 준비하십시오.”라고 전하며 참석한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 부산 종교 교육원 - 우리 와드 이겨라!

부산 종교 교육원 퀴즈 대회가 끝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목이 쉰다. 온 힘을 다해서 응원을 하기 때문이다. 와드별 대항

으로 진행되는 부산 종교원 퀴즈 대회는 그래서 응원의 열기가 더 뜨겁다. 2007년 1월 20일, 수정 와드에서 열린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에서도 뜨거운 응원은 여전했다. 하얀 칠판에 신중히 문제를 풀어나가는 청소년들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부산 종교 교육원은 칠판에 답을 적어서 드는 기존의 방식과 함께 경전에 나와

는 성구를 찾는 방법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퀴즈 대회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퀴즈 대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1위가 엇갈리고 또다시 엇갈리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다가 결국 해운대 와드가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신정, 금정 와드가 공동 2위를 차지하였다. 해운대 와드 참가자였던 권희진, 강세희, 백혜원 자매는 1위의 비결에 대해 “반원들이 계획을 세워 스스로 모여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동안 함께 기도하고 금식했으며 경전을 먼저 모두 읽은 다음 교재를 통해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였다.”고 전했다. 대회에 참석한 방어진 와드 김강남 자매는 세미나리 시간이 “경전 지식 뿐 아니라 개인적인 간증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간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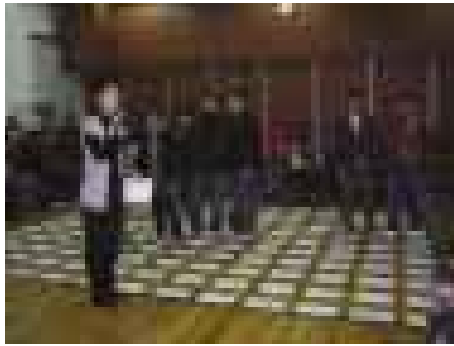
## 서울 동 종교 교육원 - 청소년들의 문화 축제

동 종교 교육원의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는 단순히 문제를 풀고 1등을 가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양한 공연에서부터 레크리에이션까지 더해져 청소년들의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지난 1월 20일 동대문 와드에서 열린 퀴즈 대회도 다양한 행사로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시간이었다.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이세리 자매의 가야금 연주와 서울 동 스테이크 도봉 와드 최민정 자매의 피아노 반주가 어울려져 ‘Amazing Grace, As Now We Take the Sacramen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들려주었다. 서울 동 스테이크 정정환 형제의 진행으로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이어졌다. 본격적인 경전 퀴즈 시간은 ‘Quiz Show! Inside of Book of Mormon’이라는 타이틀로 4개의 스테이크 단위로 팀이 체스판을 연장시키는 판 위에서 문제를 선택하

고 맞다면 앞으로 전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동안 쌓아온 경전에 대한 지식을 겨룰 수 있었다. 게임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 퀴즈 게임의 선택지에 간간이 장기 뽑내기, 다른 팀 점수 빼앗아 오기 등을 섞어 재미를 더했다. 퀴즈 대회의 최종 1등은 서울 스테이크가 차지했고, 2등은 서울 동 스테이크 차지였다. 퀴즈 대회가 끝난 후에는 김미남 형제의 초청 강연도 있었다. 동 종교 교육원 원장인 서희철 형제는 “세미나리와 경전 퀴즈 대회에서 얻은 경전 지식은 앞으로 선교 사업을 하는데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특히 청소년 시절부터 경전을 상고하고 공부할 것을 강조했다.

### 서울 서 종교 교육원 - 가슴 떨리는 토너먼트

서울 서 종교 교육원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도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예선의 진행 방식이 무척 독특하다. 모든 예선 참가자들에게 표식을 주고 문제를 하나씩 틀릴 때마다 그 표식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제일 많이 표식을 남긴 8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표식이 오가는 만큼 청소년들이 느끼는 재미와 긴장감도 크다. 본선은 예선전의 긴장감을 그대로 옮겨온 토너먼트 방식. 본선에 진출한 8명이 두 명씩 맞대결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성구 익히기를 강조하는 만큼 성구를 완전히 외우고 있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된다. 2007년 2월 3일, 신촌 와드에서 열린 경전 퀴즈 대회의 본선 진출자 8명은 그야말로 성구 익히기의 달인들이었다. 청소년들은 지난 일 년 간 어떻게 경전 공부를 해 왔는지를 확인해 주듯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 나갔다. 가슴 떨리는 토너먼트의 최종 승자는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의 구예경 자매. 뒤이어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의 김인협 형제가 중학교 3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수상을 차지했다. 서울 서 종교 교육원 원장인 길정권 형제는 앞으로도 매년



위쪽부터 1라운드 스피드 게임을 진행 중인 중부 종교 교육원. 게임판을 오가며 퀴즈를 풀어가는 서울 동 종교 교육원. 칠판에 답을 적어 문제를 푸는 부산 종교 교육원. 개인전으로 치러지는 광주 종교 교육원

있을 종교 교육원 주최 퀴즈 대회에서는 25개의 성구 익히기가 주로 강조될 것이며, 일 년 동안 성구를 부지런히 외운 청소년이라면 누구라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독려를 잊지 않았다.

### 중부 종교 교육원 - 3라운드를 통과하라!

중부 종교 교육원은 난이도별로 달리 구성된 3개의 라운드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퀴즈 대회를 진행한다. 라운드가 바뀌면서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 청소년과 아쉽게 떨어진 청소년들의 희비가 교차하며 중부 종교 교육원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의 열기와 재미는 고조된다. 2007년 2월 3일, 청소년들이 모임 시작 바로 전까지 손에서 성구 익히기 카드를 놓지 못하며 긴장하는 가운데 경전 퀴즈 대회가 시작되었다. 예년과 달리 와드별 대항전으로 치러진 이번 퀴즈 대회는 성구 익히기가 주를 이룬 2라운드에 들어서며 열기가 달아올랐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3라운드에서는 열거된 문장의 초성만을 보고 경전 구절을 맞추고 성구를 외워야 했는데 긴 구절을 토씨하나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읊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며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감탄했다. 퀴즈 문제를 열심히 만들고 준비했는데 출제자를 무색하게 할 만큼 너무 잘 풀었다는 어느 자매의 칭찬처럼 세미나리로 하루를 시작하던 청소년들이 즐거움 이기고 부족한 자신을 이기며 쌓은 경전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이번 퀴즈 대회의 최종 우승은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에게 돌아갔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경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고 했던 하봉채 형제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자라는 청소년들의 눈빛은 이미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

최진 기자, 이인주 기자, 이지은 기자, 이숙희 기자, 최재현 형제, 오순임 기자, 이효선 기자

**광주 스테이크 <최진 기자>**

곽재운 형제 '장한 한국인 상' 수상 - 광주 스테이크 곽재운 형제가 2006년 12월 8일 장한 한국인상 - 특별상을 수상했다.

**대전 스테이크와 청주 스테이크 합동 청소년 대회 <오순임 기자>**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



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교리와 성약 121편 45절의 말씀을 주제로 2007년 1월 17일부터 1월19일까지 대전·청주 스테이크가 합동으로 만인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구도자로 대회에 참석한 배상영(고3) 형제는 “다른 교회에 비하여 조용하면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경건한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마산 스테이크 <김민정 기자>**



합동 상호 향상 모임 - 2007년 1월 13일 토요일, 스테이크 합동 상호 향상회 모임을 위해 마산 스테이크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얼굴로 모임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의 얼굴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다. 세미나가 끝난 후 배를 타고 즐거운 모습으로 돌섬에 도착한 청소년들은 그곳에서 쌍쌍피구, 장애물 릴레이 등 체육활동과 무도회를 통해 우정을 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부산 스테이크 <이인주 기자>**

신입 독신 환영회 - 1월 20일 수경와드에 모인 부산스테이크 독신들은 청소년에서 독신으로 올라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신입 독신들을 환영하는 모임을

**“가족 역사 사업에 함께 참여하실 교회 봉사 선교사를 모집 합니다”**

‘한국 가족 및 교회 역사부’(이하 ‘가족 역사부’)는 ‘교회 봉사 선교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돌아가신 조상을 구원하는 사업에 함께 참여하시고, 다른 회원들의 가족 역사 사업에 도움을 드릴 형제, 자매님을 찾습니다.

아래 <봉사 분야>에 열거된 여러 조건 중 일부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참여 가능하며, 가족 역사 지원부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 도움을 제공할 것 입니다. (항목 1, 3 해당) 봉사 부름에 합당한 독신 성인 이상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봉사 선교사로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1. 봉사 시간: 주당 최소 8시간, 최대 31시간
2. 봉사 기간: 12개월, 18개월 또는 24개월 (최대 30개월까지 연장 가능)
3. 자격
  - ㄱ. 성전 추천서 소지자/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회원

- ㄴ. 신체적으로 봉사가 가능하며 재정적 자립 능력이 있는 회원
  - ㄷ. 만 18세 이상 봉사를 희망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
4. 봉사 장소
- ㄱ. 성전 내에 위치한 가족 역사 지원부 (정기적인 사무실 방문이 가능하신 회원)
  - ㄴ. 해당 스테이크 내 가족 역사 센터 (전국)
  - ㄷ. 자택 (지방)
5. 지원: 관리 본부 총무부장 정동환  
전화: 02-2232-1441(내선 660)  
Jeongdh@ldschurch.org

**봉사 분야**

1. 계보사업/족보 전문가
2. 언어 전문가 (영어와 일어)
3. 컴퓨터 전문가



가졌다.

동계 청소년 대회 - 2007년 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지리산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청소년과 고문 등 1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 청남 스카우트 캠프 및 청년 야영 대회가 있었다.



### 서울 북 스테이크 (이숙희 기자)

동계 청소년 대회 - 지난 1월 25일에서 27일까지 홍천에서 2박 3일간의 일

정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라는 주제로 서울 북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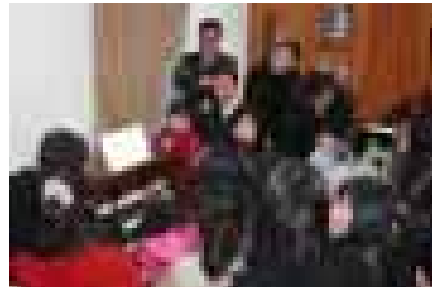


### 서울 영동 스테이크 (이진희 기자)

스테이크 대회 - 2007 전반기 서울 영동 스테이크대회가 1월 28일 일요일 (일요총회) 오전 10시에 송파 구민회관에서 열렸다.

### 안양 스테이크 (나선경 기자)

음악과 함께 하는 특별 노년의 밤 -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안양 스테이크 모임이 오르간의 아름다운 선율로 문을 열었다. 2007년 1월 14일 안양 스테이크 산본 와드에서는 '음악과 함께 하는 특별 노년의 모임'이 있었다. 첫 순서는 초청 강사로 온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김정애 자매의 오르간 음악 세미나였다. ■



## 지역 복지부의 메시지

지역 복지부는 지역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교회 지침서 249쪽, '영적인 복지(우리가 자신을 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와 현세적인 복지(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자립하는 것)'에 나와 있는 원리들을 이해하고 그러한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와 줍니다. 이 난을 활용하여 우리는 영감에 찬 메시지와 간증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제언과 자원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도 도와 주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지의 첫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애굽으로 간 요셉은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권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오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30세 때, 요셉은 두 가지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 왕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선언하며 자신의 신앙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으며, 다가오는 칠 년의 기근을 위해 준비

하기 위해서 애굽을 다스리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록에는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 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많은 축복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은 이 기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은 큰 궁전과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큰 축제와 연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곡물을 모으고 창고를 지어 곡물을 그 안에 저장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기근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많은 축복을 받을 때 무엇을 합니까?

신앙, 검약 그리고 비전에 대해 요셉이 보여 준 모범은 우리가 우리의 축복에 대해 생각하고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고 어느 때든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추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축복받은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조양호, 영동 스테이크 송파 와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프랑스의 한 신문이 독자들에게 물어 보았다. 수많은 응답 가운데 한 어린 소녀가 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눈”이라는 것이 뽑혔다. 이런 내용의 글을 초등학교 때 책에서 읽고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린 자녀를 보고 있는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눈이야 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에 동감을 하면서 그 내용은 오랫동안 내 기억에 머물러 있었다.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는 것이 결말이 나고 있는 그해 겨울은 나에게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치고 스트레스는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가 드디어 나는 몸져 누워 버렸다. 생전 아픈 표정조차도 보이지 않던 아빠가 누워 있으니 아이들에게는 충격이었나 보다. 가끔씩 조심스런 눈으로 내 침대를 맴돌다 저희들 방에 돌아가곤 하는 눈치였다. 그날 밤 한 밤중에 약을 먹으려고 자리에서 간신히 일어나 거실에 나왔다가 아이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불을 켜 놓고 잠들었나 싶어 방문을 살피며 여는 순간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려 “왜 자지 않고?”라고 묻는 나의 질문에 큰 아이가 “아빠가 아프시잖아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치 감전된 것처럼 가볍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의 기도는 이튿날 나를 가볍게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은 록키산맥에서 몰아치는 눈만큼이나 매섭게 발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며칠 밤을 새며 공부를 했지만 일은 풀리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현기증이 나더니 몸이 휘청 거리며 쓰러져 가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아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몸을 바로 잡으며 누가 나를 도와주었나 보려고 뒤돌아 보았지만 아무도 없고 단지 차가운 겨울바람이 귓가를 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어깨에는 따스한

느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때 나는 머리에 언뜻 한 생각이 스쳐 갔다. ‘아이들의 기도의 손이 나와 우리 가족을 돌보아 주는 또 다른 큰 손을 부르고 있구나. 그 손이 조금 전에도 왔다 갔구나.’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담아 두었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이들의 기도하는 손이다.”

기도를 잘하는 둘째 딸이 이제 성장하여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 떠나기 전에 그 딸과 우리 부부는 성전 의식을 받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먼저 의식을 마치고 해외 왕국 실에 있는데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딸이 들어왔다. 우리 셋은 기도를 하였다. 한없는 감사와 평화와 사랑이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거기에는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선교사로 떠나가는 자랑스러운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사랑스런 눈도, 기도를 하는 그 예쁜 손도, 어깨를 잡아준 그 큰 손의 따스함도 있었다. 나에게 그 시간과 공간이 아이의 눈에도, 어른의 눈에도, 아마도 주님의 눈으로도 이 세상에서 아니 영원까지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었다. ■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 감독: 윤영동(전임: 김광윤)

**전주 스테이크**  
남원 지부 지부 회장: 황창규(전임: 김현수)

**서울 남 스테이크**  
서초 와드 감독: 조준영(전임: 정인성)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2명



**배진희 자매**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플로리다 올랜도  
선교부



**허영호 형제**  
서울 남 스테이크  
신림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